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2010 report c o n t e n t s

서론

여는말 02
프로젝트 사업 과정 04
프로젝트 사업 개요 06



프로젝트 소개

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 10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 지원 사업 29
다문화사회조성사업 36



프로젝트 성과 및 후기

사업 성과 44
Professional Activist의 한마디 46
Beautiful Story 49
사업 담당자 Story 53
부록 : 2010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 소개 57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이주 여성의 집은 어디인가?: 다문화가족의 사랑의 집짓기

☐ 다문화사업 배분소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2009년 12월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국 전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한국으로의 입국을 앞둔 여성들에게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에 여성들은 각자 쪽지를 강사 선생님에게 내밀었다. 그 쪽지에는 한국 남편의 집 주소가 적혀있었다. 여성들은 도별 경계만 표시 된 백지의 한국 지도안에서 강사가 '점'으로 찍어 준 장소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 점은 그들이 한국에서 머무르게 될 '집'이다. 여성들은 그곳이 어떤 환경을 가진 곳인지, 남편이 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남편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집'을 찾아온다. 막연한 기대와 설렘, 두려움과 걱정은 낯선 곳으로 길 떠나는 모든 여행자들의 공통된 감정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남편은 유일한 애착의 대상이며 귀착의 장소이다.

한국에 온 많은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집에서 한국 음식만을 먹고, 한국어만 들으며 아이를 낳고 기른다. 가까운 친지나 가족도 없기 때문에 답답할 때 호소할 사람도 없고, 한 두 마디의 짧은 한국어와 눈치로 어렵게 하루를 살아간다. 여성들은 '뿌리' 문화로부터 떨어진 자의 심리적 불안과 무력감을 경험한다. 남편의 집은 심리적 귀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그 내밀함 때문에 많은 비밀을 만들어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주여성들은 때때로 남편과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배척받고 심한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혼자 한국 땅에 떨어진 여성의 삶의 질은 그녀의 한국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호의'와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은 지도상의 '점'만 믿고 먼 곳으로 여행 온 여성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으로 다가온다. 폭력은 여성을 영구적으로 황폐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의 문화적 경멸은 여성의 '자아' 자체를 부정한다. 여성들은 표정으로, 신음으로 애타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이주 여성의 고통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감정 있는 한국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이주 여성과 한국 가족, 시민 및 활동가들은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공간으로 변화시켜낸다.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 가족은 부부 자식 간, 부부간, 고부간 소통 부재와 갈등,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존중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의 방법을 알게 되

“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이주 여성의 고통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감정 있는 한국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이주 여성과 한국 가족, 시민 및 활동가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공간으로 변화시켜낸다. ”

었고, 시어머니는 이방인 머느리를 가르치고 감시하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함께 놀고, 일하며, 농담할 줄 알게 되었다. 이주 여성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를 다져 나갔다. 다문화 가족 아이들은 엄마 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엄마의 친구이며 강력한 후원자인 한국 활동가들과 외국인 '이모들'에게 우쭐대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지도상의 '점'으로 존재했던 낯선 집을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다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내는 풀뿌리 사업으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으로 깊은 상처를 지닌 이주 여성들이 많다.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하여 여성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 안전망이 제공하는 새로운 집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두려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음마를 하는 법을 배워나간다. 이주 여성들은 안전한 새 집에서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 훈련을 받으며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간다. 그러나 오랜 기간 무력한 자리에 있던 여성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일은 '인간에'와 '인권'에 바탕을 두어 정서적·경제적·교육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일이다. 다문화가족이 담당해야 할 잠재적인 갈등과 폭력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문제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선주민과 이주 여성 모두 평등에 기초한 다문화적 감수성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2010년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인 선주민과 이주여성들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라는 오랜 고민과 실천을 현실화시켜냈다. 이주 여성과 한국 가족, 한국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는 평등과 사랑, 돌봄의 회로들로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과정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파트너단체 전국공모

우정사업본부 지원 확정 및
kick off 행사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파트너단체 선정심사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지원 사업 내용 확정

2010. 2~3



사업 간담회 및
워크숍

2010. 4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시작

2010. 5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중간보고 및 1박2일 프로그램

쉼터 간담회

우정사업본부 중간보고 제출

2010. 6,7



2010. 8, 9

우정사업본부 중간평가사업
보고 참석

2010 다문화글짓기 공모전
공모 시작

2010 다문화글짓기 공모전
수상자 발표

쉼터 간담회



2010. 10

2010다문화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2010 쉼터 작품전시회

단체 현장방문



2010. 11, 12

파트너 단체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단체 현장방문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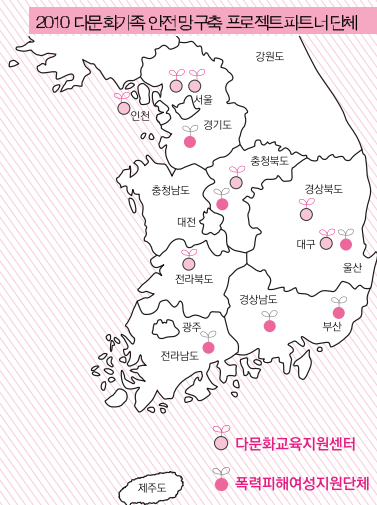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개요

2010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전망(Safety Net) 확보, 정서적·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과 지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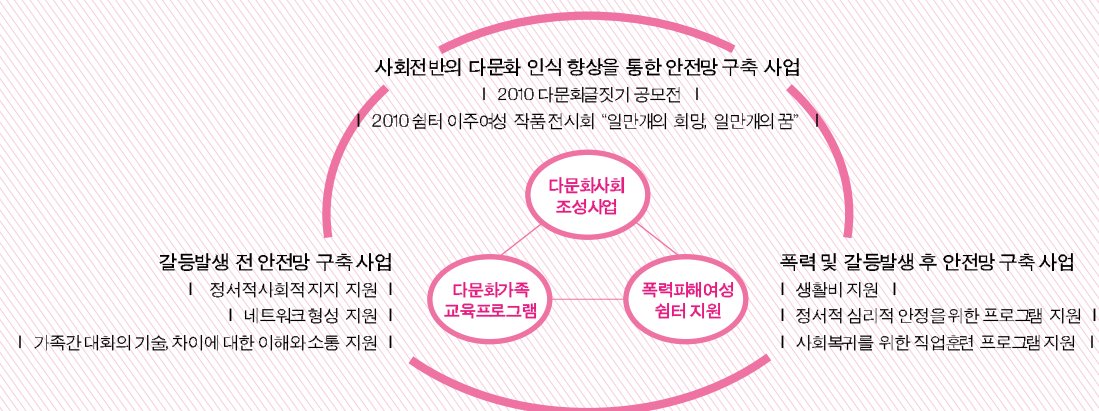
정서적인 불편함이나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Safety Net)은 이 사회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은 기존의 삶과 물리적·정서적 거리가 있는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던 기존 커뮤니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환경,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차별과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 성원으로 인정받고 물리적·심리적 안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중요 시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 확보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과 안정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과 폭력 발생 위기 전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Safety-Net) 구축 프로젝트 사업방향



첫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다문화사회 도래’ 및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키워드들이 이야기 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했다는 사실 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이질감과 다문화가족이 겪어야 하는 위험노출 상황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남성 배우자의 평균 나이 차이는 11.1년이며, 남성배우자가 재혼인 경우의 비율(2010년 37.2%)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나라나 언어, 살아온 환경 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 재혼이라는 특이성 등 다각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리고 대화의 기술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결혼이주여성과 남성배우자 그리고, 가족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관계, 시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 아이와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갖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파트너단체

단체(기관명)	권역	사업주체
희망융상	경상(양산)	다문화가족학교 - 어화동동네사랑
광주YWCA	전라(광주)	엄마랑 아이랑 프로젝트
오산이주여성센터	경기(오산)	다문화가족 문화·교육·만남을 통한 행복찾기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청주)	부부대화나누기 - 행복, 사랑 함께 나누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경상(부산)	다문화가족 솔루션 - 아름다운 동행 (시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 관계향상을 위한사업)
대구가주여성인권센터	경상(대구)	한부모 이주여성 아이와의 관계증진 - "열려라 한부모 세상"

※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은 파트너 단체를 전국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24 개의 단체 중에서 6 개의 단체를 선정.



둘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복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2008년)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7.7%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부부보다 40.3% 정도 발생률이 높으며, 문화적 차이가 차별 혹은 물리적 폭력의 발생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무엇보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보일러 값을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난방을 꺼 놔야 하는 것이 현실”인 열악한 쉼터의 상황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쉼터들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체험, 심리치료프로그램,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쉼터지원 프로그램 파트너 단체

단체기관명	권지역	사업내용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	문화체험, 미술심리치료, 직업교육
충북이주여성쉼터	충청	문화체험, 미술심리치료, 직업교육
인천이주여성쉼터 올리라	경기	문화체험, 미술심리치료, 직업교육
구미죽향쉼터	경상	문화체험, 미술심리치료, 직업교육
전북이주여성쉼터	전라	문화체험, 미술심리치료, 직업교육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신규)	대구	생활지원, 미술심리치료, 문화체험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신규)	서울	생활지원, 미술심리치료, 문화체험

※ 코디네이팅 단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셋째, 사회전반의 다문화 인식 향상을 통한 안전망 구축 - 다문화사회조성사업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향해 한걸음 나아갔습니다.

다문화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게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차이에 대한 존중을 높여야 다문화 사회는 가능합니다.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2010 쉼터 이주여성 작품 전시회> “일만개의 희망, 일만개의 꿈”을 통해 다문화사회 조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쉼터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사회와 공유하였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입파위령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0 다문화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리더로써 살아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다문화를 고민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나아갔습니다.

☺ 2010년 쉼터 이주여성 작품 전시회



☺ 2010년 다문화 글짓기 공모전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소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지원사업 | 다문화사회조성사업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지원사업 | 다문화사회조성사업



부부관계증진 가족관계형성 이주여성사회응응 자녀와관계형성 지역사회와의 만남

다문화가족 문화·교육·만남을 통한 희망찾기 - 오산이주여성센터

우리 모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문화가 스며있다. 한국 문화와 다른 어떤 문화가 아닌, 이미 우리 사이에 개성있고 맥락이 다른 여러 문화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만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대화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우리 안에 다문화가 있었다. 활동일지 중에서

사업개요

사업명	다문화가족 문화, 교육, 만남을 통한 희망찾기
사업기간	2010년 6월 ~ 11월
총사업비	5,636,000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문화정체성을 확립시킨다. 다문화가족 부부(사부모)와 일상적 소통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유대를 강화시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한국사회에서 주체적 여성으로 여성성과 자아를 확립시키고자 한다.
사업대상	필리핀, 베트남, 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총 550명 (연인원)

그 첫번째 이야기, 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

"처음엔 피곤해서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아내가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조르고 사무실에서도 전화가 와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면 좋다고 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나니 참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입장의 남편들을 만나니 위로도 되었습니다. 집사람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 베트남_당티하, 유희태 (부부모임수기 중)

오산이주여성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양산 희망웅상
광주YWCA



사업세부목표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문화를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주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문화를 알리고,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겪는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시키고자 하였다.

- 세부목표**
- 다문화가족 자녀 엄마나라 모국어 익히기
〈다문화가족, 아시아 언어 배우기〉를 통하여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엄마 모국어 동화읽기 교실〉을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한다.
 - 아시아 전통문화놀이 배우기
〈아시아 전통미술/놀이 활동〉을 엄마와 자녀가 함께 진행한다.

다문화가족 유대를 강화 시키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족 부부, 시부모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주여성 전통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행복한 다문화가족을 만들고자 한다.

- 세부목표**
- 다문화가족 아시아 음식 만들기
다문화가족이 함께 엄마나라 음식을 만들면서 가족관계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 음식 나눔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다문화가족 아시아 전통문화, 풍습, 관습 바로알기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아시아 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 영화로 떠나는 아시아
영화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역주민이 이주여성 나라별 문화전통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나들이가 진행되었고,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주체적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 세부목표**
- 이주여성 수다방 - 이주여성 증언대회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가부장사회에 대해 이주여성 스스로가 증언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저소득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개선 나들이
저소득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유대 증대를 위한 나들이를 개최한다.



사업수행일정 및 평가

세부사업명	사업수행일정	세부사업명	사업수행일정
엄마와 배우는 모국어인사말 나라별 전통놀이	필리핀: 7월22일, 23일, 26일, 27일 태국: 8월20일, 21일, 27일, 28일 베트남: 8월27일, 28일, 9월10일, 11일	각나라 음식 만들기	7월23일: 필리핀음식만들기 / 8월2일: 태국음식만들기 9월4일: 한국음식만들기 / 10월2일: 베트남음식만들기
아시아문화, 관습알기	7월27일: 태국문화알기 8월29일: 필리핀문화알기 9월7일: 베트남문화알기	이주여성수다방	11월15일: 자기소개 살아온이야기 1월18일: 어렸을 때 어떤놀이를 했나요? 11월19일: 꿈-미래희망 / 1월22일: 내 삶의 주인은 나
영화로 만나는 아시아	6월26일: 말할수없는비밀 (중국) 7월29일: 블랙 (인도) / 8월28일: 천정암마 (한국) 9월30일: 요시모토나라 / 10월23일: 북경자전거	가족나들이	7월10일: 서울랜드 11월9일: 영평사구절초축제, 석경리박물관

☺ 자녀와의 관계향상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모국어와 나라소개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흥미롭게 했다. 필리핀 공동체 대표인 조세핀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태국모임의 주체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엄마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강사를 하였다. 태국과 베트남의 자녀들은 모임 이후 집에서 모국어를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엄마들 스스로 강사가 되면서 아이들은 엄마나라에 대해 많이 친해졌다.

☺ 가족 간의 이해 높이기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그 나라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향이 진한 음식을 먹으면서, 단 간식을 먹으면서 더운 나라는 단 과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집안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서로 알게 되었다. 문화와 기후가 달라서 음식도 조금 다르다는 경험은 가족 내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격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 나라 문화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아감으로 가족 내 의사소통을 높여내려고 하였다. 나라의 인사법과 말이 서로 다르고 기후가 다름으로 인해 살아가는 모습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영화로 만나는 아시아는 누구나 와서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사회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우리 안에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 서로 지지하며 힘을 주기

이주여성수다방을 통해 서로 깊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서로 어려운 점을 나누고, 조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팎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어린 시절의 삶부터 우리의 꿈과 희망을 나누면서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되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마지막 주제로 무지개 색깔 손바닥을 찍어 무지개를 만들며 희망을 만들었다.

부부간지배충진 가족관계향상 이주여성사회적응 자녀의문화관계향상 지역사회와의 만남

다문화가족솔루션 아름다운동행 -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단독세대 보다 동거세대일 때 가족 내 갈등은 복잡적이다. 이번 사업은 크게 개별 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그리고 센터에서 진행된 관계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시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의 면접상담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집을 방문하면서, 한국어감사, 자국의 통역사들이 함께 방문하면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속 시원히 말 할 수 없었던 하소연을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장이 되었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최종보고서 자체평가 중에서

사업개요

- 사업명** 다문화가족 솔루션 “아름다운 동행”
- 사업기간** 2010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5,000,000원
- 사업목적**
 - 단독세대보다는 동거세대일 경우 가족 내 갈등이 증폭되고 고부갈등은 또한 부부싸움을 유발하기도 하여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부정적 관계가 있다. 이에 시어머니·며느리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제결혼 당사자들인 부부모임, 남편모임을 통하여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 사업대상**
 - 사업추진지역 : 부산
 - 사업대상 : 이주여성+시어머니+남성배우자 (예상인원 157명 / 실 참여인원 136명)

사업세부목표

세대별 가정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 시어머니·이주여성면담 및 상담 (자유롭게 속마음 털어놓기)
- 이주여성 면담 및 상담 / 시어머니 면담 및 상담

시어머니·며느리 관계향상프로그램

- 시어머니 프로그램 4회기
 - 나도 할 말 있어요 (며느리의 장단점 찾아보기) / 며느리문화에 대해 / 역할극으로 알아봐요
 - 나의문제해결방법 (가족과 건강하게 소통하기)
- 이주여성 프로그램 4회기
 - 나도 할 말 있어요 (시어머니의 장단점 찾아보기) / 한국의 결혼문화와 가족문화
 - 역할극으로 알아봐요 / 나의 문제 해결방법 (가족과 건강하게 소통하기)
- 관계향상 프로그램 2회기
 - 소통하는 방법 / 평등한 가족관계

다문화가족솔루션 “함께하는 마음 여행”

- 다문화가족 솔루션 함께하는 마음 여행 : 부부교육 - 함께하는 우리 /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남편(부부)모임 조직 및 진행

- 남편모임 조직 : 고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 가족 남편 참여 유도 / 남편 모임 월1회 진행



사업수행일정 및 평가

세부프로그램	추진시기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내용
프로그램 기획회의	4월	‘하루다른 동행’ 사업 목적 및 전체 일정 공유	▪ 프로그램 기획회의 - 사업담당 역할 배분에 따른 실무 분담
대상자 모집 및 홍보	5월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련을 위한 기획회의 (1차)	▪ 실무자 2명, 이주여성리더 5명 - 5개국 통·번역지원, 세대별 방문상담자 3명 역할 분담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련을 위한 기획회의 (2차)	▪ 홍보 - 프로그램 안내지 내용 마련 ▪ 나라별(5개국) 번역, 프로그램 안내홍보 - 센터 한국어교실, 센터 카페, 관련 기관 공문 및 팩스 전송 등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련을 위한 기획회의 (3차)	▪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한국어교실 신청서자료 등을 통한 동거 ▪ 세대별 연락, 방문세대 확정(15세대) 연락 후 방문 일정 확정
세대별 가정방문을 통한 면담 및 상담	6월	세대별 가정방문을 통한 면담 및 상담	▪ 이주여성·시어머니 면접지 마련-세대별 가정방문 ▪ 몽골(2), 베트남(5), 태국(2), 일본(3), 중국(3)을 방문하여 세대별 의견 수렴, 시어머니·며느리 프로그램 진행 일자 확정, 한국어교실 참여자 및 프로그램 참여 가능 대상자에게 안내문 배포 - 몽 골 : 5/19일 방문 / - 베트남: 6/17, 18, 22일 방문 - 태 국 : 6/23일 방문 / - 일 본 : 6/24일 방문 - 중 국 : 6/25일 방문
시어머니·며느리 관계향상 프로그램	7월	시어머니·며느리 관계향상 프로그램 ♡ 시어머니·며느리 분리 진행 (7/20, 22, 27) ♡ 시어머니·며느리 통합 진행 (7/29 2회연강)	▪ 세대별 가정방문 및 전화 연락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한 세대 의견 수렴 7월 중 관계향상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 - 7세대 (시모 - 6명, 며느리 - 7명)
함께하는 마음여행	8월	다문화가족 솔루션 “함께하는 마음여행” (10/2 11:00 ~ 16:00)	▪ 시어머니·며느리 관계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및 부부교육 자원 신청 부부, 자녀, 실무자 외 45명
남편모임 조직 및 진행	10~11월	부부교육 2회 (10/26, 11/2 19:00 ~ 20:00)	▪ 시어머니·며느리 관계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및 부부교육 자원 신청 부부 - 5쌍 참여
사업 마무리	11월	사업 마무리 및 향후 관리 계획 논의 및 전체 정리	▪ 초기 상담과의 변화 지점 분석, 사후 모임을 가능 여부 ▪ 참여한 시모들의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 모색, 전체 평가

- ☺ **공감대형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슴 답답함과 말 못할 속마음을 만껏 풀어내고 특별한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포함한 가족생활 안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 가족애를 확인하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탐색하여 가족의 자원을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이해의 폭 넓히기** 이주여성에게 배우자가정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고부관계 및 부부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탐색하게 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 **자조모임 형성** 지속적인 만남을 위하여 시어머니 며느리모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남편모임, 부부모임을 마련하여 친밀한 부부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부부모임으로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부부대화나누기 행복, 사랑 함께나누기!_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칭찬하기 (긍정적 스트로크의 사용) 연습, 원하는 부부모습에 대한 목표정하기 (별칭) 등 을 통해서 두 사람이 원하는 부부상에 대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 인해 자신의 결혼관을 타인 앞에서 논의하고 조정하고 인정받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결혼선배와 후배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인식을 확장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 좋지 않은 것을 배울까봐 다른 이주여성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남성 배우자에게 변화가 생겼다.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남성 배우자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의미했다.

사업 보고서 중에서

사업개요

- 사업명** 부부대화나누기 - 행복, 사랑 함께 나누기!
- 사업기간** 2010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5,000,000원
- 사업목적** • 결혼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
•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확대하고 행동특성 및 대화방식 인식
•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고 공유하며 발전
- 사업대상** • 사업추진지역 : 청주시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결혼초기 (1년~5년미만) 155명 (연인원)



사업세부목표

결혼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여 부부 상호간의 이해 및 관계향상, 가족기능성 향상

- 세부목표
- 자아인식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 증진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 및 행동 특성 이해 / 올바른 자아 인식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자아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 의사소통의 기술 및 부부간의 친밀감 향상
긍정적 스트로크 주고받기 능력 향상 / 감정표현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 향상
스트레스 해소전략 통해 부부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 / 성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결혼생활의 대처능력 향상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현재 과제 알기 / 결혼생활 대처능력 향상 및 가족기능성 향상

사업수행일정

세부프로그램	추진시기	사업추진내용
자아인식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 증진	5/29	<div><div><div>프로그램 및 강사소개</div><div>집단 목표 이해 및 설정</div><div>부부대화 진단 설문지작성</div></div><div><div>부부간 소개 및 별칭 짓기</div><div>스트로크 주기</div><div>나의 부부상은?</div></div><div><div>강의</div><div>활동</div><div>평가 - 사전 감사지: 남편과 아내 분리하여 작성</div></div></div>
의사 소통 기술 향상	6/5	<div><div><div>분위기 조성</div><div>감정 표현하기</div></div><div><div>마음의구조와 기능 이해</div><div>핵심 감정 영역알기</div></div><div><div>강의 - 핵심가치는 무엇인가?</div><div>활동 - 감정표 이용</div></div></div>
부부 대화 질 향상	6/12	<div><div><div>분위기 조성</div><div>상대방 Egogram 그리기</div></div><div><div>자기 성격 이해</div><div>부부가 함께 Egogram 그리기</div></div><div><div>마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5가지 자아상태 강의</div><div>배우자간 분리하여 활동 후 다시 배우자와 함께 활동</div></div></div>
문제 해결 능력 향상	6/19	<div><div><div>분위기 조성</div><div>나와 배우자의 관계 알기</div><div>스트레스 해소법</div></div><div><div>4가지 관계 유형 강의</div><div>활동 - 나와 배우자의 모습 표현 - 스트레스 체크 및 해소방법 익히기</div></div></div>
성 역할의 태도 변화 알기	6/26	<div><div><div>분위기 조성</div></div><div><div>현대사회와 성 역할의 태도 변화 알기</div></div></div>
가족 친밀감 향상 및 배우자 심화 이해	7/10	<div><div><div>분위기 조성</div><div>대화 분석하기 - 쿠키호일을 이용 배우자간 하고 싶었던 말하기</div><div>배우자 얼굴 그리기</div><div>가족 조각 실연</div><div>가족 친목의 시간</div><div>문화 체험</div></div><div><div>대화 분석하기 - 쿠키호일을 이용 배우자간 하고 싶었던 말하기</div><div>배우자 얼굴 그리기</div><div>체험 (가족역할극) 및 활동 -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 8조각 활동</div><div>가족 친목 시간 - 장소 : 별맞한지마을 (10:00~21:00)</div></div></div>
결혼 대처 능력 향상	7/11	<div><div><div>분위기 조성</div><div>나의 인간관계 망 그려 보기</div><div>미래의 나와 가족에게 편지 쓰기</div><div>사후 설문지 작성</div><div>프로그램 평가</div></div><div><div>강의 및 활동 - 계획서 작성, 서로의 계획 이야기 나누기 - 부부간 서로 듣고 싶은 말 연습 - 사후 설문지작성</div><div>마무리 - 장소 : 별맞한지마을 (09:00~15:00)</div></div></div>

사업수행 평가

☺ 참석한 부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 결혼한 지 6개월 미만의 부부들에겐 아내들이 남편을 거부하는 태도(눈을 맞추지 않거나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부드러운 태도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각각 모임을 가질 때 아내들의 이야기 참여도와 자신을 개방하려는 정도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남편들도 처음에 부정적인 태도(빈정거리는 말투, 불분명한 의사표현, 가르치려는 태도 등)를 보이던 것에서 모임참여에 긍정적인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고참부부들과의 경험 나눔의 시간을 통해 결혼생활의 좋은 모델을 신참부부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칭찬하기(긍정적 스트로크의 사용) 연습, 원하는 부부모습에 대한 목표정하기 (별칭) 등을 통해서 두 사람이 원하는 부부상에 대해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 인해 자신의 결혼관을 타인 앞에서 논의하고 조정하고 인정받는 시간이 되었다.





한부모 이주여성 아이와의 관계증진 열려라, 한부모세상_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 가정 혼인율이 증가하는 만큼 3쌍 중 1쌍이 이혼(2008년 통계청 자료)하는 등 이혼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결혼이주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제도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혼, 사별, 가정폭력 피해로 위축된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경제 및 양육에 대한 정보에 취약하므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당당한 삶을 준비 하도록 하였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타인이 아닌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부모간 이해증진 가족관계형성 이주여성사회적응 자녀와의관계형성 지역사회와의 만남

사업개요

- 사업명** 한부모 이주여성 아이와의 관계증진 “열려라 한부모세상”
- 사업기간** 2010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5,000,000원
- 사업목적**
- 부모이주여성간의 연대감형성 및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 등을 얻어 여성가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와 미술을 통해 해결하고 자녀들 간의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증진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 사업대상**
- 사업추진지역 : 대구
 - 사업대상 : 한부모 이주여성 및 가장 94명 (연인원)



사업세부목표

한부모 이주 여성 가장이 자신을 긍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교육,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 자신을 긍정할 수 프로그램 및 한부모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교육,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 부모 여성 가장이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 및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와 미술을 통해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를 높인다.

세부목표

-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한부모 이주 여성간의 정서적인 연대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며, 놀이와 미술을 통해 한 부모 이주 여성 가장과 자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심리적 문제 해결 및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수행일정 (“열려라 한부모세상” 교육프로그램)

추진시기	사업추진사항	사업세부내용
8월 1일 ~ 29일	프로그램 진행	• 대상 : 한 부모 이주여성 가장 • 인원 : 10명 • 회기 : 총 5회기 (1회기 : 2시간) • 내용 : 이혼, 사별의 과정에서 오는 심폐간, 좌절감 등에 대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내국인 한부모 여성 가장 보다 정보력이 취약한 한부모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교육과 경제 교육을 통해 한부모 여성 가장이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내용	• 1회기 : 자기 긍정 프로그램 • 2회기 : 내게 맞는 돈 관리법 • 3회기 : 다양한 취업의세계 & 한 부모 가족 지원법과 제도 • 4회기 : 올바른 자녀 위한 부모교육 1 -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 • 5회기 : 올바른 자녀 위한 부모교육 2 - 한부모 역할 훈련
9월 26일 ~ 27일	엄마와 풍덩풍덩, 풍덩풍덩	• 대상 : 한부모 이주 여성 가장, 자녀 • 인원 : 14명 • 내용 : 한부모 여성가장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를 통해 정서적 친밀감 느끼기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삶의 주인 되기!	• 대상 : 한부모 이주 여성 가장 • 인원 : 7명 • 내용 : 집단 상담을 통해 한부모 여성 가장의 내면을 드러내고 연대감을 형성하여 내 삶의 주인 되기
	자유로운 나의 성	• 대상 : 한부모 이주여성 가장 • 인원 : 7명 • 내용 : 이혼, 사별 후 숨졌던 나의 성에 대해 한부모 여성간 자유롭게 소통하기
	물루랄라! 나를 표현 해봐	• 대상 : 한부모 이주여성 자녀 • 인원 : 7명 • 내용 : 그리기 매체를 통해 나를 표현 해보며 자아 존중감 향상을 꾀하고, 적극적인 놀이 프로그램 참여로 창의력과 화합을 배우기
	엄마랑 나랑 작은 운동회	• 대상 : 한부모 이주 여성가장, 자녀 • 인원 : 14명 • 내용 : 엄마와 자녀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놀이를 통해 엄마와 자녀가 함께 뛰며 친밀감 느끼기

사업수행 평가

교육프로그램

이주여성가장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한부모 이주여성가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보들을 알게 되어 이주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다.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한부모 이주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건전한 소비, 한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게 되어 여성가장으로서 당당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자기긍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었다.

1박2일 워크샵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 한부모라는 상황이 주는 내면의 분노와 경험을 드러내어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었다. 1박2일을 같이 보내면서 한부모간의 정서적인 유대와 연대감을 형성하여 삶의 활력을 찾고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놀이와 미술을 통해 이주여성가장과 자녀들 간에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심리적인 안정을 높이게 되었다. 자녀들 간의 또래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배우게 되었다. 한부모 이주여성과의 자녀간의 관계가 향상되었다.

다문화가족학교 어화둥둥내사랑_ 양산 희망옹상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들어오던 부부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남편이 피곤해도 집안일이나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한다면서 활짝 웃는 이들 셋 둔 중국여성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시댁이나 연장근로 등으로 신청을 해 놓고도 참여하지 못하는 부부들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기는 했지만 늦게라도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늦게라도 참여해서 자주 얼굴을 대한 부부들이 친교가 형성되어 공통의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친목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들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일지 중에서

사업개요

- 사업명** 다문화가족학교 "어화둥둥내사랑"
- 사업기간** 2010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5,000,000원
-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배우자, 가족들이 상호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배운다.
 - 배우자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가족의 친밀도를 높인다.
- 사업대상**
 - 사업추진지역 : 경남 양산시 웅상 지역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연인원 272명



사업세부목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배우자, 가족들이 상호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높인다.

타문화 존중감 고취 • 문화다양성이해 / 양국문화존중감 고취

배우자나라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결혼이민자출신국 문화이해 • 결혼이민자출신국과 한국의 생활문화 비교이해

갈등해결능력을 강화한다.

갈등해결능력강화 • 우리가족 갈등해결 방법 개발

사업수행일정

세부프로그램 추진시기

사업추진내용

부부교육	5월 넷째 주	• 다문화 역사 체험, 타문화에 대한 이해 - 강사가 준비한 자료 교육과 참가자들의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
	6월 셋째 주	• 전문 강사가 진행하여 부부 간의 스킨십을 많이 활용하여 부부 간의 정을 쌓음 - 웃음치료
	7월 셋째 주	• 말로 상처 받은 경험 공유, 배려하는 말로 바꾸는 연습 - 유형 설명, 직접 시연, 영상물
	8월 셋째 주	• 근본적으로 다른 성의 차이, 내놓기 힘든 부부 간의 성에 대해 토론 - 영상물, 자료배부교육
	9월 둘째 주	• 전체 경제흐름, 가족 경제주기, 주기에 따른 가정경제 구축방법 등 - 자료배부교육 질의응답
	10월 셋째 주	• 경제교육 및 집중교육상당 - 자료배부교육 질의응답 • 댄스교육 - 음악과 함께 댄스
	11월 첫째 주	• 부부들이 직접 나라별 음식을 만들고 주변인들과 나눔 • 댄스교육
어린이교육	5월 넷째 주	• 엄마나라여행 (베트남 - 영상, 물품체험
	6월 셋째 주	• 리듬놀이와 반죽놀이를 통한 정서교육 - 직접체험
	7월 셋째 주	• 부산시립 현악4중주단 연주 및 해설 - 연주관람
	9월 둘째 주	• '앨범교수파벤드' 영화관람 - 영화관람
	10월 셋째 주	• 레크리에이션 댄스 • 가을곤충 만들기 - 직접체험
	11월 첫째 주	• 레크리에이션 댄스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 - 직접체험, 놀이를 통한 교육



사업수행 평가

적극적 참여도

이주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교육에 적극적이었으나 남편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으며 제반여건들도 남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남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는 적극성을 보였다.

-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협조와 대화가 증가하였다.
-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남편들의 변화가 있었다.
- 재혼가정에서 자녀로 비롯되는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었다.
- 시택행사나 경제적 문제에 일방적이던 남편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다.
-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부부들의 노력이 있었다.

부부교육프로그램

- 배우자 상호간의 존중감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남편과 시택의 가부장적 사고로 말미암아 아내들에 대한 존중감이 많이 떨어졌고 아내들 역시도 배우자에 대한 존중감보다는 불신이 많았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노력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고,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간의 관계가 향상되었다.

- 결혼이주여성의 자긍심

한국의 경제중심주의, 가부장적 사고로 인하여 이주여성은 한국에 거주하는 헛수만큼 자긍심이 떨어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부부교육을 통하여 남편들의 사고가 조금씩 변화되고 아내의 문화를 이해,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이주배우자들의 자긍심도 향상되고 있었다.

- 다문화가정자녀의 자발적 참여도와 자긍심

어린이들은 고정적 사고가 자리잡지 않아서 인지 교육의 효과가 아주 컸다. 처음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전화를 하면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물론, 식사메뉴까지도 자발적으로 건의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어린 동생들을 알아서 어르고 달래며 교육에 동참하고, 교육이 끝나면 책상정리며 뒷마무리 등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봉사정신까지 터득해 나갔다. 엄마나라에 대한 반응들도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은 엄마나라체험과 정서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엄마나라체험은 엄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도 마련했다. 엄마나라말로 인사를 나누어 봄으로써 엄마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폭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서 교육은 아이들 간의 친교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교육도 횟수를 늘려 부모모임과 함께 진행하고 좀 더 알찬 교육을 위해 실무진들의 많은 고민과 의견수집이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가족프로젝트 엄마랑! 아이랑! 광주YWCA

부모간 이해증진 가족관계형성 이주여성사회적응 자녀의문화형성 지역사회와의 만남

힘든 문화 속에서 혼자 터득하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는 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더 힘들어 하면서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교육에 있어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다문화가정은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과정에서 자녀교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어린자녀와 함께했던 다양한 각도의 본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신체, 감성, 생활습관에 도움이 되었으며, 더불어 이주여성 또한 자연스런 한국어 습득 및 사회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활동일지 중에서

사업개요

- 사업명 가족프로젝트 “엄마랑! 아이랑!”
- 사업기간 2010년 4월 ~ 10월
- 총사업비 5,500,000원
- 사업목적
 - 이주여성들에게 다른 문화속에서의 자녀 양육시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형성과 가족간 친밀감 형성 및 어려움 등을 해결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세대 교육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한다.
 - 이민여성 간 소통의 자리를 통한 소그룹모임을 유도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 사업대상
 - 사업추진지역 : 광주광역시
 - 사업대상 : 이주여성과 자녀 총 199명 (연인원)



사업세부목표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교육

- 사회와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이해 / 서로 다른 문화 이해, ‘나와 너’ 인간관계훈련 / 서로의 비전나누기
- 한국어 이해 및 대화실습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형성과 양육교육

- 아이들의 특성 및 성장과정 이해 / 자녀양육법 이해 및 실습
- 자녀와 함께하는 ‘육아프로젝트’ 달성 – 대화법, 책읽기, 동요지도, 가족초대 등

이민여성간 소통의 자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이주여성간 소통의 자리 마련
- 자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인정을 위한 리더십교육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으로 유도

사업수행일정


세부프로그램	추진시기	사업추진내용
대상자선정을 위한 홍보 및 모집	4/26 (월) ~ 5/14 (금)	홈페이지와 소식지, 기관네트워크, 언론보도의뢰, 교육 참가자 우편발송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이주여성 중 3~6세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로 13명 최종 선정
사회와가정에서의 나, 비전나누기	5/19 (수)	한국에서의 사회적응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와 너’의 인간관계훈련 진행하였는데 처음이라 서먹하며 마음오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녀들 이야기로 분위기 전환
나의 고향나라와 한국	5/26 (수)	나의 고향나라와 한국의 서로 다른문화를 비교 - 가족간 이해를 돕고자 가정의 이야기 나누기 · 아이스브레이크 활동 및 친정나라 소개
연극놀이를 통한 만남과 소개	6/9 (수)	서로 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크댄스를 통해 스킨십을 유도하고 자녀들도 엄마의 모습을 따라하며 신체활동을 하게하며, 동작을 통해 ‘손, 발, 머리’ 등 단어 익히기
손유희를 통한 학습	6/16 (수)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동요 (곰세마리, 올챙이와 개구리, 산토끼 등)를 배우면서 율동과 함께 한글 익히기
그림책과 친구 I	6/23 (수)	· 사물인지 향상을 위하여 그림책 읽기 및 동화구연 진행 · 그림책에 나온 케익 만들기
그림책과 친구 II	6/30 (수)	· 여름에 즐겨먹는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고 과일 그림책을 읽어주고 여름과일인 수박이 들어간 동시를 읽어주며 몸으로 표현하기 · 2부 활동으로 수박종이접기, 수박화채 만들기
미술학습을 통한 대화법	7/7 (수)	· ‘우리가족’ 그림책을 읽어주고 가족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 각자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그려보기 · 2부 활동으로 가족공동체활동 (고리 만들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소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지원사업 | 다문화사회조성사업

세부프로그램	추진시기	사업추진내용
실내놀이 학습 I	7/14 (수)	• 실내놀이활동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소개하며 실제 놀이 활동을 진행 • 신문지를 활용한 액자 만들기, 부채 만들기
실내놀이 학습 II	7/21 (수)	• 엄마의 어릴적 놀이에 대해 나누고, 지난 시간에 이어 실내놀이 활동에 대해 소개 • 물고기를 만들어 낚시놀이 • 2부 활동으로 바다속 풍경을 함께 만들기
음식이름학습 및 요리실습	7/28 (수)	•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고, 음식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면서 음식이름의 단어 익히기 • 2부 활동으로 김밥 만들기 및 샐러드 만들기 실습
아외놀이 학습	8/11 (수)	• 무더운 여름 물놀이를 통하여 가족들의 관계 향상 •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플래시카드를 이용한 게임학습 및 문화답사 (전남 장흥 자연이좋은사람들, 녹차밭, 무위사 방문)
생활속 수놀이 I	8/18 (수)	• 단순한 동화책 읽어주기로 끝나지 않고, 책으로 수학 놀이를 진행 • 책 속에 나오는 동물 중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누구?", "다리가 네개인 친구들만 찾기" 등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생활속 수놀이 II	8/25 (수)	• 냄비 뚜껑은 동그아미, 우유팩은 네모 등 집안 곳곳에 볼 수 있는 물품속에 숨어있는 도형 찾기 놀이 • 찾은 물건을 종이에 대고 그려보기 • 작은 인형과 큰 인형 두 개를 준비하여 작은 인형을 움직여서 '앞, 뒤, 옆' 등의 공간 개념을 이해시키는 놀이 활동 진행
가족 초대하기	9/30 (목)	•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나누며 부모님께 쓴 편지를 낭독, 전달 • 어린이아들은 그림을 그려 부모에게 전달 • 처음 외박하는 레스토랑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식사 시간
칭찬, 사랑하기	10/6 (수)	• 15회기 프로그램을 평가 • 그 동안에 배웠던 활동들을 정리하여 아이들과 해보도록 다짐 • 함께 참여한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선물 전달



그 두번째 이야기,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지원사업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지원사업
파트너 센터 소장님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구미축향쉼터
대구이주여성쉼터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충북이주여성쉼터
인천이주여성쉼터 울랄라

쉼터생활비지원
집단치료
문화체험
기술교육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보고서

사업수행 평가

☑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녀의 신체, 감성, 생활습관,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주여성 또한 자연스런 한국어 습득 및 사회적응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자녀와 가족이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나라와 아버지나라가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가족간 친밀감 형성 및 자녀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활동들을 체험하면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자녀교육의 의식이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다문화 가정 내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차세대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각도의 활동프로그램은 자녀의 신체, 감성, 생활 습관,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주여성 또한 자연스런 한국어 습득 및 사회적응교육의 효과와 가족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_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지원사업



직업기술교육으로 진행한 쉼터공예배우기는 기술을 익히는 한편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간을 제공 해 주었다. 각국의 여성들이 작업과정을 통해 같은 여성으로서의 같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공감대를 새롭게 체험하는 한편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매우 만족을 하게 되었다. 직업기술을 익히기 위해 채택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정서적으로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상담의 음악치료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가정폭력으로 상처 받은 심신이 치유되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에게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종평가서 중

사업개요

사업명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긴급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
사업기간	2010년 4월 ~ 10월
총사업비	40,000,000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민자들에게 쉼터제공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상담지원을 통하여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교육 등 자립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한국사회에 안전하게 복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지역 : 전국6개 지역 (서울, 대구, 광주, 인천, 구미, 청주) 7개 쉼터 • 사업대상 : 쉼터거주 이주여성 연인원 863명

사업세부목표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들을 위한 긴급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기본적 생존권에 침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여성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이들이 안정감을 찾고 한국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생활비 지원의 목표** 한국에 연고가 없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쉼터에 머무는 동안 이들에게 식비 및 생활비 제공을 통해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존해준다.
-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가정폭력 피해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목표** 폭력피해 여성들이 한국문화 체험을 통하여 한국생활에서의 활력을 찾게 하며 아울러 건강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기술교육프로그램의 목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쉼터에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회복한 이후 자립이후에 본인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쉼터에서 퇴소시 자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사업 내용

☐ 쉼터 생활비지원 -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 대구이주여성쉼터, 구미죽향쉼터

이주여성들의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할 경우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관계로 상당기간 동안 쉼터에 머무르게 되며, 생활비 일체 및 나아가 법률지원이나 필요시는 귀국지원까지도 쉼터에서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없는 쉼터는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며,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적절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하기 어렵다.

한국여성재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년간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지난 2008년 ~ 2009년 동안 이주여성 폭력 피해 쉼터의 생활비를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폭력 피해 쉼터 지원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5개의 쉼터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0년에는 전국에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이주여성쉼터 2곳을 새롭게 선정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행복이주여성쉼터) 하여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기존 지원 쉼터였던 구미죽향 쉼터는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평균인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인원보다 항상 초과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지원액은 각 쉼터에 거주하는 평균인원에 대해 한 달에 50,000원의 생활비를 상정, 각 쉼터별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였다.

추진시기	4월 ~ 11월 (월 or 주 단위)
추진계획	쉼터 생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와 서울 행복이주여성쉼터에 매월 생계비 지급 - 10명 기준×50,000원=500,000원 • 구미 죽향쉼터에 매월 생계비 지원 - 10명기준×25,000원=250,000원

추진실적	각 쉼터별 지원자 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대구	9	14	13	13	14	15	16	16		
	행복	14	13	10	12	13	14	15	15		
	죽향	21	23	19	18	18	17	19	17		

- 4 ~ 11월 8개월간 3개 이주여성쉼터에서 총 368명의 이주여성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각 쉼터에 지급하였다. 생활비는 주로 식비와 생필품(세제, 휴지, 의류, 분유 등) 등을 지급하여서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이 쉼터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단치료 프로그램 – 인천이주여성쉼터 올랄라, 구미죽향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쉼터

쉼터 입소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료는 이들의 향후 생활복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입소자들을 위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서예활동 등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각 쉼터별 구체적인 집단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목표

- 미술, 음악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식함으로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고통과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며 긍정적 자기를 형성한다.
- 희망을 고취시켜 삶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적을 한다.

● 서울이주여성쉼터

프로그램 미술작업을 통해 만나보는 나 (미술치료)

기간(시간) 2010.5.18 ~ 2010.6.22 (매주 화, 목)

사업방법 개별면담 및 사전검사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점토 만들기, 석고 만들기, 킴꾸미기 등 미술치료를 진행하였다. 미술을 통해 앞으로의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써서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북이주여성쉼터 / 구미죽향쉼터

프로그램 집단음악상담치료

기간(시간) 전북이주여성쉼터 - 2010.5.5 ~ 2010.9.3 (매주 금요일), 구미죽향쉼터 - 2010.7.4 ~ 2010.7.25 (매주 일요일)

사업방법 노래부르기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자국의 민요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희망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천이주여성쉼터 – 올랄라

프로그램 서예활동

기간(시간) 2010.7.7 ~ 2010.9.29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

사업방법 익숙하지 않은 붓글씨를 배우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 말이 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붓글씨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배움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 기술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쉼터에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회복한 이후 자립이후에 본인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쉼터에서 퇴소할 때 자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이주여성쉼터

파사교육 • 참가자 : 팜티칸지, 핑키

• 장 소 : 남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 사 : 최영숙 교수 (남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홈패션 • 참가자 : 엘리자벳, 김명실, 엠마, 완니, 핑키

• 장 소 : 한국문화센터 성북교육원

• 강 사 : 오순옥 원장 (한국문화센터)



● 구미죽향쉼터

컴퓨터교육 • 강사 : 진순애 • 장소 : 유능컴퓨터 학원



● 전북이주여성쉼터

퀼트 공예 • 강사 : 송선경

● 인천이주여성쉼터 – 올랄라

플레스 플라워 교육 • 강사 : 박금순



● 충북이주여성쉼터

플레스 플라워 교육



문화체험

서울이주여성쉼터

- 행사개요**
- 일 시 : 2010년 5월 19일 (수)
 - 장 소 : 에버랜드 (경기도 용인시 소재)
 - 주 최 : 서울이주여성쉼터
 - 참여인원 : 11명
(쉼터 입소자 9명, 상담원 2명)

- 사업성과**
-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무기력으로 손상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불안정에서 문화 체험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이주여성에게 삶의 기쁨을 제공하여 자존감향상과 정서적 치료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전북이주여성쉼터

- 행사개요**
- 일 시 : 2010년 6월 10일 (목)
 - 장 소 : 임실치즈마을 정읍체험장
 - 주 최 : 전북이주여성쉼터
 - 참여인원 : 12명

- 사업성과**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통해서 한국의 서민문화와 치즈의 제조과정, 농사를 짓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옥정호를 둘러싼 수려한 자연경관을 둘러보며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

- 행사개요**
- 일 시 : 2010년 5월 9일 (일)
 - 장 소 : 서울랜드
 - 주 최 : 서울행복이주여성쉼터
 - 참여인원 : 15명

- 사업성과**
- 복지넷과 함께하는 2010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특별할인 초청행사가 너무 좋았다. 하지만 멀미가 나서 더 많이 못탄 것, 동물원에 가지 못해 안타까웠다. 전체적으로 외출한 것에 대해 좋아했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하루를 맘껏 놀 수 있어서 좋았다.



구미죽향쉼터

- 행사개요**
- 일 시 : 2010년 5월 30일 (토)
 - 장 소 : 대구 우방랜드
 - 주 최 : 죽향쉼터
 - 참여인원 : 22명
(쉼터 입소자 19명, 전담인력 3명)

- 사업성과**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어려운 결혼 생활로 정서적으로 피폐한 쉼터 입소자들이 동반 아동과 함께 놀이 동산 문화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추억에 남는 체험행사가 되었다. 입소자들이 쉼터 생활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구이주여성쉼터

- 행사개요**
- 일 시 : 2010년 11월 6일 (토)
 - 장 소 : 안동댐과 영주 일대
 - 주 최 : 대구이주여성쉼터
 - 참여인원 : 31명
(쉼터 입소자 어른 15명, 어린이 8명, 전담인력 6명, 자원봉사 2명)

충북이주여성쉼터

- 행사개요**
- 일 시 : 2010년 5월
 - 장 소 : 청주이주여성쉼터내
 - 주 최 : 충북이주여성 쉼터 (장단그기)
 - 참여인원 : 10명
(쉼터 입소자 8명, 전담인력 2명)

- 사업성과**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야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주여성들에게 추억에 남는 체험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식생활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상적인 밥상 문화에서 발효식품과 저장식품의 쓰임을 통해 한국의 식습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인천이주여성쉼터 - 울랄라

- 행사개요**
- 일 시 : 2010년 11월 14일 09시~18시
 - 장 소 : 에버랜드 (경기도 용인)
 - 주 최 : 인천이주여성쉼터
 - 참여인원 : 입소자 5명, 상담원 2명

- 사업성과**
-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심신의 긴장을 풀고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높일수 있었다. 쉼터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함으로써 자매애를 느낄 수 있고 서로간의 지지체제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소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지원사업 | 다문화사회조성사업



그 세번째 이야기, 다문화사회 조성사업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생각, 언어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된 그들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해본다면 편견은 가지지 않게되고, 우리와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 와서 살아야하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본다면 조금 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 박찬경 (글짓기 공모전 수상 소감 중에서)

쉼터 이주여성 작품 전시회 “일만개의 꿈, 일만개의 희망”

2010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사업_다문화조성사업

쉼터이주여성 작품 전시회 “일만개의 꿈, 일만개의 희망” 기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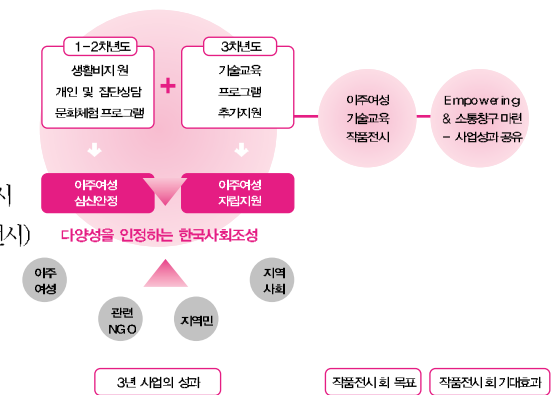
사업목적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3년(2008년 ~ 2010년)동안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1~2차년도에는 이주여성들의 생활비 지원 및 긴급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였고, 3차 년도에는 보다 빠른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직업 교육을 추가 실시하였다.

쉼터 이주여성 작품 전시회 “일만개의 꿈, 일만개의 희망”은 3차년도인 2010년에 실시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자존감 및 내적 성장을 가져온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제작한 성과물을 토대로 한 전시회를 통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업진행

- 일시** 2010년 10월 26일 ~ 30일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지하2층 우표문화누리
진행내용 각 쉼터별 집단상담 및 기술교육 작품 전시회
- 서울 : 집단미술치료 작품 및 홈패션 작품 전시
 - 인천 : 압화 작품 20여 종 및 집단치료 서예작품 8여 종 전시
 - 청주 : 압화 작품 (액자 - 20여 종 / 액세서리 - 40여 종 전시)
 - 전북 : 퀼트 작품 20여 종 전시
 - 서울행복 : 퀼트 작품 20여 종 전시



사업성과

쉼터 이주여성 작품 전시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심신 안정 및 역량 강화를 이루고,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었다. 쉼터 이주여성 작품 전시회는 이주여성이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통하여, 이주여성과 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쉼터 전시회

주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한국여성재단 후원 우정사업본부
장소 서울중앙우체국우표문화누리 일시 2010년 10월 26일 ~ 30일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지원사업 | 다문화사회조성사업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프로젝트사업_다문화사회조성사업

우정사업본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0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함께 나누는 좋은 세상”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여성재단은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국사회의 차세대 리더들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동·청소년 <2010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2010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다문화 가족 및 친구의 경험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충만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었다.

·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공모과정은?



<2010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6월 ~ 7월간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8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총 230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다. 1차 적격평가를 거쳐 206작품이 선정되었고, 4명의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8월 27일부터 9월 7일 동안 1차 심사를 통해 총 44작품을 선정하였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2차 심사를 통해 30작품을 선정하였다. 9월 16일 3차 최종회의를 통해 북대구초등학교 4학년 백서영(대상)의 작품 등 총 22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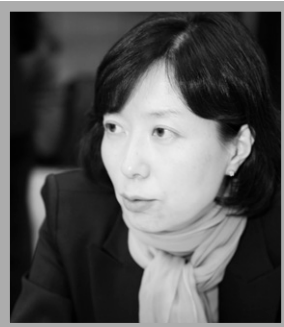
· 홍보 진행 사항

- 전국 1,600개 학교 : 공모문, 포스터 발송 / 전국 20여개 시·도 교육청 협조공문 발송
- 400여개 글짓기, 공모전, 다문화, 논술학원, 청소년 관련 사이트, 카페 등 온라인 홍보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홍보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배너)
- 언론매체 보도자료 배포 2회 배포

다문화글짓기 심사위원



김영옥 위원
한국여성재단 다문화소위원회
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



이숙진 위원
한국여성재단 다문화소위원회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



이창호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



정용환 위원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

수상자명단

〈대상〉 다문화 큰우정상
〈1등〉 다문화 희망날개상

전 체	백서영 : 북대구초 4/4(대구)
초등부	유은주 : 백동초 3/5(경남)
중등부	김소영 : 광주중앙중 3/1(광주)
고등부	김유리 :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3/2 (대구)

〈2등〉 다문화 이꿈상

초등부	홍다은 : 산평초 5/1 (경기)
중등부	이주은 : 관음중 3/2 (대구)
고등부	김규훈 :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2/2(경기)

〈입상〉 다문화 친구상

초등부	이지수 : 신미림초 5/6 (서울) 이정민 : 충주용산초 5/3 (충북)
	오연정 : 서귀포초 6/2 (제주) 박찬경 : 미원초 6/1 (충북)
	주상민 : 인천선학초 4/4 (인천)
중등부	이현민 : 수내중 2/3 (경기) 정아단 : 부산유락여중 2/3 (부산)
	임수빈 : 정화중 3/5 (대구) 박진희 : 송파중 3/8 (서울)
	박은지 : 천안여중 1/10 (충남)
고등부	이선경 : 인천박문여고 2/1 (인천) 박혜인 : 부개고 2/6 (인천)
	이윤열 : 여의도고 2/8 (서울) 김영우 : 광주제일고 3/4 (광주)
	백찬은 : 부산사직여고 1/5 (부산)



2010 다문화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주최 한국여성재단 후원 우정사업본부 장소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장 일시 2010년 10월 26일 오후 1시



글짓기 공모전 수상자 수상 소감 Story



글짓기 시상식을 다녀와서

백서영 (북대구초 4학년)

“서영아, 너 1등 했대!”. “응?”. 눈높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엄마는 내 손을 잡으며 흥분했다. 전화를 받고 도 나도 엄마도 믿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들께서 불러서 칭찬해주시고 친구들도 축하해 주고 부러워 해줘서 한동안 마음이 붕 붕 떠다니는 것 같았다.

시상식이라는 곳에 처음 참석했다. 무척 떨린다. 상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상소감까지 말해야 한다니. 상 받는 건 너무 좋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만 되었다. 언니, 오빠, 친구들을 대표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니 너~~무 떨려서 울 뻔 했다. “앞으로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떨리는 시상식이 끝나고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장래희망에 대해서 얘기했다. 나는 작가, 다른 친구들은 디자이너, 모델, 통역사, 파일럿 등 다양했다. 우리의 장래희망을 가지고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꿈 이야기로 만들어주셨다. 진짜 이 친구들과 이런 꿈을 이루어서 함께 한다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 테이블에 있었던 초등학교 팀과 헤어질 때는 서운하기도 했다. 지금도 보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주변을 보니 내가 다문화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다. 가까이는 우리 집 안 모습이 그렇고, 또 반 친구도 다문화가정인 친구도 있다. 지난번 잠깐 갔던 교회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만났고, 길을 가다가도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옛날에도 있었던 사람들이네 지금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내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져서 인 것 같다.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 정이 생긴다. ‘다문화 글짓기 대회’는 상을 받은 기쁨도 컸지만, 내가 쭉~욱 자라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칭찬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다문화라는 단어가 내 생각을 키워준 것 같다.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진짜로!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시상식

박찬경 (미원초 6학년)

어느 날, 전화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방학 아카데미에서 선생님의 권유로 쓰게 된 다문화 글짓기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우리 집의 늦둥이 인지라,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오빠들도 마치 제 일인양 기뻐해 주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10월 26일, 시상식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오빠를 만나고, 점심을 먹고 시상식장에 도착했다. 처음 본 시상식장은 웅장하면서도 신기했다. 나는 내가 평소에 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별 부담 없이 시상식장에 도착했는데 생각 외로 너무 큰 시상식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아빠, 엄마와 왔는데 우리는 나를 포함해 총 6명의 식구가 도착했다. 눈길도 우리 가족 쪽으로 쏠리는 듯해 창피하기도 했지만, 일을 하기에 바쁘게 상을 받는걸 축하해주려 도착한 오빠들이 정말 고맙았다.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내 글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관해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의 수상자들이 상을 받은 후 간단한 음식들과 함께 초등부 시상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와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글짓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 나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 시상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다문화가정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나는 다문화가정은 좋은 점 이라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나라의 부모님이,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생각, 언어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된 그들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해보면 편견은 가지지 않게 되고, 우리와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 와서 살아야하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보면 조금 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성과 및 후기



사업성과

전국 13개 지역, 1,5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별 참여인원 현황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10년 계획인원	'10년 참여인원	달성도 (%)	프로그램	'10년 계획인원	'10년 참여인원	달성도(%)
엄마! 아이랑 프로젝트 (광주)	30	199	663	서울센터	15	22	146
한부모이주여성, 아이와의 관계증진 (대구)	30	37	123	인천센터	15	29	193
아름다운 동행 (부산)	30	87	290	청주센터	15	39	260
다문화가족문화, 교육, 만남을 통한 행복 찾기 (오산)	30	212	706	전북센터	15	96	640
부부대화나누기-행복, 사랑 함께 나누기 (청주)	30	155	516	구미죽향센터	15	27	180
여화동동네사랑 (양산)	30	97	323	서울행복센터	15	150	1000
소개	180	787	437	대구이주여성센터	15	141	940
2010 다문화글짓기 공모전	200	230	115	소개	75	504	672
				총계	455	1521	334

신문보도 17회 보도되었습니다.

• 연합뉴스	2010년 07월 10일	한국여성재단, 다문화 글짓기 공모
• 충청일보	2010년 07월 14일	다문화 사회, 글로 표현해봐요
• 뉴스와이어	2010년 10월 21일	한국여성재단, 2010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브레이크뉴스	2010년 10월 22일	한국여성재단,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 뉴시스	2010년 10월 26일	우정사업본부, 2010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개최
• 디지털데일리	2010년 10월 26일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대상 수상
• 아시아경제	2010년 10월 26일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열려
• 아주경제	2010년 10월 26일	우본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 백서영 양 대상
• 어비즈	2010년 10월 26일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후원
• 파이낸셜뉴스	2010년 10월 26일	북대구초등 백서영 양, 다문화 사회 글짓기 공모전서 대상
• 프라임경제	2010년 10월 26일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다문화주택
• 한국일보	2010년 10월 26일	백서영 양, 다문화 글짓기 공모전 초등부문 대상
• 동아일보	2010년 10월 27일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북대구초교 백서영 양 대상
• 소통뉴스	2010년 10월 27일	결혼이주여성, 아픔과 외로움 켄트로 김다
• 전자신문	2010년 10월 27일	우정사업본부,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
• 여성신문	2010년 10월 29일	이주 여성 손재주 끝내줘요
• 이코노믹리뷰	2010년 11월 02일	다문화사회 글짓기 백서영 양 대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2010 다문화글짓기 공모전에서 고등부에 1등을 수상한 김유리 학생은 차세대 활동가, 차세대 리더답게 친구들과 함께 이주 만을 위한 생활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전국 9개의 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선배 활동가님들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김유리

이주자들을 위한 캠페인 봉사활동을 하던 중, 일회성이 짙은 캠페인의 한계에 부딪혀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찾던 중, 이주여성들이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이나 가정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주여성들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을 담은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은 한글을 읽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줄은 알지만 시간적 경 제적 형편 상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거나 문화,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우리 사회와 단절되 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한글 어휘와 함께 여러 가지 팁을 소개하는 안 내서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10대 소년 소녀들의 머리로 써 내려간 내용들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기획부터 표지 디자인, 자금 마련까지 저희 손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 여성재단을 통해 전국 곳곳의 이주여성센터에 가이드북을 배포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저희들의 노력이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문화사업이 나아갈 길 이주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2008년 본 센터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 대구지역은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평균치보다 높은 구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이주여성’의 삶과 인권에 집중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 센터는 이주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이주여성운동단체임을 표방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주여성과 함께 대구지역의 가부장성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해준 곳이 한국여성재단이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떼를 쓰다시피 의논을 하곤 했다. 엄청난 업무량에도 항상 친절하게 안내하는 여성재단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존재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국에서 가장 가부장적인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대구에서 이주여성운동 및 상담활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여성 관련 사업의 방향성과 사업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주여성과 관련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다.

첫째, 이주여성을 가족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임파워링하고 여성주의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주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헌신과 복종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이주여성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은 꾸준히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은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기존의 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자로서 경험과 느낌을 젠더 관점에서 구성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여성과 선주민 여성들간의 차이가 서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동의 정체성으로 이주여성과 선주민여성들이 평등한 교류를 통해 상호 역량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및 각 국가들의 가부장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선주민 여성들과 함께 공동의 관심, 경험, 느낌들을 나누고, 세계화 및 이주체계가 어떻게 여성의 삶들과 연결되는지를 사고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가족유지가 아니라 이주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은 존엄함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온전한 가정의 존립은 상대방의 문화와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선주민 여성운동의 경험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넷째, 지원 사업의 대상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인 다문화가정의 틀을 벗어나 외국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 그 외 다양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여성들로 확장시켜나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전개되는 다문화정책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인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의 가부장성을 드러내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섯째,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상업적인 중개업체들의 반인권적인 광고의 영향과, 다문화정책들이 이주여성들을 사회의 주변부로 간주하고 전개되다보니 부정적인 편견이 많이 있다.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켜나갈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제안해본다.

첫째, 이주여성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각 지역에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신뢰를 받는 활동가들이 있다. 이들이 이주여성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활동가 교육이나 리더십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주의 관점 및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견지한 이주여성전문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주민여성폭력 지원 시스템은 긴급센터 - 상담소 - 쉼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주여성은 긴급센터 - 쉼터로 이루어져 있다. 위기상담으로의 전화상담은 상담하는 여성들의 실제적 상황 파악이 어렵고 지속적 개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 개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질 높은 삶의 향유를 위한 지지적 상담과 폭력예방 교육 및 이주여성 권리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이주여성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여성의 권리를 안내할 이주여성인권 강사양성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채 배우기도 전에 인권침해를 당한다. 따라서 이주여성인권강사가 양성되어 후배들에게 고향언어로 안내할 때 예방효과 및 권리를 지키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넷째, 이혼이나 사별한 이주여성들, 쉼터 퇴소 이후의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이주여성자립지



원센터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한국 사회 내에 사회적 지원망이 제한되어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생계, 자녀양육 등 생활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섯째, 일상에서 친밀성과 여성주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지트가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은 친구집에서 모임을 하면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담소를 나눈다. 개별 가정에서 고향 요리를 해먹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음식 먹으면서 친밀성이 높아지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따르면 힘든 일을 겪는 이주여성들이 밥 때 오면 나름대로 준비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그러면 그 여성들은 안도하면서 너무도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는 음식이라면서 맛있게 먹는다.

축제 때 동원당해서 누구에게 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해서, 힘든 내 친구 위로해주기 위해서, 각자가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위해서 같이 요리를 해서 나누어 먹는 공간. 이러한 공간이라면 한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이 충전되지 않을까? 그곳에서 이주여성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에 눈들 수 있지 않을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밥 한끼 같이 먹고 문제 해결력도 기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 재료 준비해 와서 먹고 시설 이용료도 얼마간 내고, 모임할 때 와서 밥 먹고 놀고 공부도 하는 공간. 한 걸음 나가서 선주민들과 아시아 요리 강좌나 아시아 여행기획도 하는 등 이주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조국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아니라, 선주민 매니저 밑에서 주방보조나 서빙만하는 무늬만 다문화 식당인 일자리가 아니라, 이주여성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도 올리는 공간이 있다면 너무 멋진 일이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 재미있다. 사무실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재미있는 상상해보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우리 활동가들의 몫으로 알고 서로에게 최선의 존재가 되길 오늘도 노력한다.

사업후기

Professional Activist의 한마디



스스로 힘차고 당차게 나아가는 주역으로서의 다문화사회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현옥

다문화사회(multiculture society)란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문화, 가치관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사는 사회다. 다문화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고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121만 명, 전체 한국 인구의 2.5%가 외국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여성이 단신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의 삶 속으로 진입하는 현재 한국 사회 다문화가정의 양상은 국제이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 구성원 중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적응의 부담이 편중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실천현장은 보편성, 특수성, 문화적 감수성과 유능성을 요구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전통적인 의료적 모델이나 욕구중심모델은 일시적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이주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인적 역량이 반영되지 못한 채 무능력한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느낄 때 현장에서의 안타까움이 많다. 실제 지원되고 있는 최근의 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 가족관계 향상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한 초기적응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 방법 또한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지원과 수용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실천현장에서의 접근법은 이주자들의 자기결정, 권리, 주체성, 비판적 사고, 유능성의 획득과 같은 개념, 즉 임파워먼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실천현

장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관점과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파워먼트는 이주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정책결정자, 관련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이자 수혜자로 고착화시키지 않고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되는 정책들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의존성과 무기력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의 의사존중과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러한 활동을 어떤 방식과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실천현장에서 고민을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 생각한다.

사업후기

Beautiful Story



“이름다운 동행”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참여자 Story (후기)

호티안뚜엣(2005년 결혼/25세/베트남)

배움과 나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봅니다.

2005년, 한국말은 기본이고 한국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하여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변호와 위치를 적어준 종이를 들고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멀미를 하면서 찾아간 곳이 지금의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어교실이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반 그리고 베트남초급친구들을 위한 한국어 강사, 큰아이출산, 결혼정보회사 통역, 다문화강사, 산업인력공단 베트남통역사...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 무척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새 한국에 온지 5년이 지났어요.

작은아이 출산 후 집에서 쉬고 있는 4월 즈음에 이주센터에서 연락이 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고 베트남통역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시어머니, 남편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틈틈이 다른 나라친구(리테)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고 번역하면서 가정방문가능세대에 대하여 연락하고 확정하면서 우리집이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난감했습니다.

우리집은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길가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인데 방2, 화장실, 부엌 겸 거실해서 12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좁아 손님이 오면 부엌의 밥 먹는 곳이 아니면 앉아서 이야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타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어느새 다른 친구들 집을 다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우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 중순이었는데 날씨도 무척 더웠습니다. 불

편한 제 마음과는 다르게 모든 선생님들께서 언짢은 모습하나 없이 너무 편한 얼굴로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저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 남편의 일자리와 저의 일자리관련해서 많은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오후 내내 시어머니와 저의 고단함과 때로는 웃음소리로 온 집안이 꽉 찼었지요. 선생님들이 우리집을 다녀가신 이후로 저와 센터와의 관계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점을 알게 되어 좋았던 것도 많지만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칠 때 가족도 친구도 아닌 센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락도 없이 센터로 갔지만 항상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정민이 엄마 왔네.^^”라며 눈인사 건네주시고 먼저 시간되는 선생님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때로는 “그거는 정민이 엄마가 잘못했네! 내가 시어머니라도, 남편이라도 기분나뻐겠다. 정도가 지나쳤네. 쫓쫓... 자기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시며 언니처럼 엄마처럼 꾸짖어도 주시고 남편 일, 시어머니, 아이들 건강, 살림경제도 이것, 저것 챙겨봐주시고....

저도 한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고 먼저 정착한 사람으로서 5년 전의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다되어 무릎이 좋지 않아 잘 걷지 못하시는 시어머니, 어린이집을 다니는 5살 아들, 당분간 일이 없어 14개월 된 딸을 집에서 저 대신 돌보고 있는 사십대 후반의 남편,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일자리를 찾아보려 베트남으로 가야하나? 조금 모아 놓은 생활비를 다 쓰고 나면 그 동안 내가 모아 놓은 비상금을 공개해야 하나 어찌나...

추운겨울입니다.~

저는 배움과 나눔(배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봅니다.



사업후기

Beautiful Story



“아름다운 동행”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참여자 Story (인터뷰)

김성애 (61세)/캄보디아 이주여성 쩐타 시모

시아머니도 한마디

요번 봄에 선생님들이 집에 오고 여름에는 쩐타가 다니는 학교도 같이 가보고 거기서 다른 시어머니들과 선생님들 강좌도 듣고 맛난 간식도 먹고, 가을에 동래산성 가서는 오리 고기도 실컷 먹고 노래방기기로 쩐타랑 노래도 부르고 춤도 쳤었지... 만나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듣다보니까 이 너무 시어매들이 며느리들이 착하다고는 하면서 너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데...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같이 살려고도 안하는데 나들어 감서 손주, 손녀 재롱보고 같이 사는 것도 복이라서 내 대에는 딸 하나 뵈다 생각하라고는 했지만 어디 그게 잘 되겠어요. 그 양반들 나이가 몇십대까? 칠십에 팔십노인도 있더만? 잘났던 못났던 내 아들만 보고 살아 온 세월이 얼마인데... 참 힘들지... 사람마다 다 지 고집은 있지요. 따문 따문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 번 봤다고 본 사람들끼리는 많이 친해졌지요. 만나면 반갑고 끝날 때 되 가면 섭섭했으니까...

내사 일이 있어서 오란다고 다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시어매들이 어디 그러요. 며느리들은 우리들하고 다니면 불편하겠지만 우리들은 오라고 불러주면 반가운 사람들이지... 어찌됐던 그동안 선생님들 일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덕에 우리는 며느리나라, 며느리, 아들공부, 대화법? 그런 것도 해 봤지. 다른 사람한테 어땠는지 물어 봤으면 더 재미나게 이야기 해줬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어쩌나... 그나저나 선생님들은 좋을 일 하시는데 도움받기만 하고 내가 도움을 못 줘서 어쩌나 미안하네... 다음에도 오라고 연락 줘요. 거 (센타)는 우리들 이야기 편하게 들어주고 언짢은 소리도 맘편히 할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을 때 가야제...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Story (후기)

판디김사(베트남)

나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하고서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말이 조금 통해서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고 힘들다는 생각에 집밖에 잘 안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이주센터의 권유로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의 유치원 숙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름방학에 베트남모임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직접 베트남어와 베트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무섭기만 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함께 베트남 동화를 찾고 지도를 찾고 책을 읽으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만 하는건데도 떨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내가 베트남어를 알려주고 동화를 읽고 쉬운 노래를 불러주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은 내게 베트남어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배운 다른 친구들이 베트남어를 재미있어하고 함께 공부한 형들이 베트남어를 노트에 적으며 재미있어 하니 같이 덩달아 신나했습니다.

집에 와서 베트남어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야기 하다가 궁금하면 베트남어로 뭐라고 해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베트남어에 관심을 보이자 남편도 같이 궁금해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부끄럼을 많

이 느끼고 말을 잘 안하는 편인데 우리 아들과 남편의 변화에 조금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의 후원으로 베트남어 책과 동화를 받아서 식구들과 함께 보니 더욱 좋았습니다. 우리엄마들은 신이나서 파워포인트로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운안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다문화 강의를 시청각실에서 했습니다. 내가 혹시 이야기하다가 기절하면 받아달라고 했는데 조금 떨기는 했지만 무사히 잘 했습니다. 이날 저는 참 기뻐했습니다. 아들과 남편도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엄마나라말 가르치는 시간이 제게 출발점이 되어 살아가는데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성재단과 우정사업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행복하게 함께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화동동 내사랑!(양산 희망옹상)
참여자 Story (후기)

고혁홍(중국)

즐거웠던 부부 모임

‘다문화가정 부부모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세 명이나 데리고 움직이려니 부담도 되고 했지만 그동안 한글학교에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을 여러 면에서 챙겨주시고 염려해주신데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던 터라 인사로 참여했던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일이 늦게 끝난다는 남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세 아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마침 어린이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갓난쟁이를 돌봐주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아이들에게 신경쓰지 않고 부부모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첫모임은 베트남

과 중국, 한국의 문화차이에 대한 전문 선생님의 강의가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 소소하게 일어났던 갈등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들이 많았는데 서로 간에 문화를 설명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서운해 하면서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상황들이었는데 선생님의 설명으로 남편도 나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참석한 다른 부부들도 서로 이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교육 후에는 모인 부부들이 차려진 저녁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은 중국 친구들과 교향의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 정도 참석하려고만 했으나 첫 교육이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남편과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 교육이 재미있었는지 즐거워했습니다. 매달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하게 배우다 보니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해, 사랑, 대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으며 행복한 부자되는 법이란 교육에선 저축 방법, 가정 지출 관리 방법, 평생주기에 따른 경제관리 등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다문화음식 만들기에서는 베트남월남쌈, 중국만두, 일본김초밥, 한국떡볶이 등을 남편과 함께 만들어 맛있게 나누어 먹고 예쁘게 포장도 해서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부부모임 두 번째에 했던 웃음치료도 지금 생각하니 참 재미있었습니다. 남편과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서로 크게 소리내어 웃어보기도 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서 유심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도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손 한 번 서로 잡아보며 힘든 남편을 위로한 적이 있었나 생각하니 눈물이 땡 돌기도 했습니다.

부부모임 동안 같이 모이고 같이 배우고 하다 보니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고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모국어로 이야기기도 하고 부부모임으로 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내년에도 부부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어화둥둥 내사랑! (양산 희망웅상) 참여자 Story (후기)

지재혁 (고혁홍씨 남편)

부부모임이 가져다 준 변화

어느 날 아내가 며칠 뒤 부부 모임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토요일이고 잔업도 있을 것 같아 못 가겠다고 했더니 집사람의 표정이 썩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별 신경쓰지 않고 피곤한 사람 토요일 저녁에도 쉬지도 못하게 어디 가자고 하나며 넘어가 버렸습니다.

토요일, 예상보다 잔업이 일찍 끝나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궁감'에 있으니 그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집엔 저녁도 안해 났다면서, 애들도 전부 희망웅상에 있으니 나중에 데려가야 할 바엔 지금 오라고.

어쩔 수 없이 작업복 차림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궁감'으로 갔는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하다보니 사람들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것 같아 겹언쩍기도 했습니다만 자리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아내에게 타박을 했더니 아내는 못들은 척 선생님의 강의를 메모하고 있더군요. 뭘 내용인데 저렇게 메모까지 하나 하며 주위 부부들을 둘러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어서 저도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각 나라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한국, 중국, 베트남의 문화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자 분들이 한국에 와서 겪은 문화적 갈등을 이야기할 땐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남자들이 나름대로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남자분이 일어

나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하는 소리들이 조그맣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각자의 경험담을 들은 후 다시 선생님의 강의는 이어졌고 내가 집사람과 겪었던 갈등도 아내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없이 무조건 한국의 문화만을 배우게 하고 한국식으로만 강요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어쩐지 말로 미안하단 말을 하기가 쑥스러워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색해 하는 부부들의 모습을 눈치 채셨는지 부부가 서로 안으며 사과하고 이해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뒤풀이 시간에 남편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 아내의 나라에 갔을 때 에피소드도 나누었습니다. 한 베트남 부부는 부부싸움 후유증으로 그때까지도 서먹서먹한 상태였는데 다른 부부들이 나서서 두 사람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 부부모임 때 아주 다정스런 모습으로 와서 부부애를 과시하더군요. 이 부부도 우리 부부와 마찬가지로 한번도 모임에 빠지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부부 모임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재미있었고 특히 뒤풀이 시간은 우리 남성들에게 참 유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제교육을 들으면서는 없는 살림이지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 잘 살아봐야겠다는 의욕을 불태웠었고 대화법을 통해선 의식적으로라도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댄스교육도 있었는데 처음엔 참 막막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있고 한글학교관계자, 선생님들이 있는데 몸이 굳어서 민망하기 그지없더군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억지로 하다보니 젊었을 때 저의 춤솜씨가 빛을 발하더군요. 댄스교육 있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교육에서 댄스를 배웠더군요. 이번 친구들 송년모임에서 저희부부와 아이들이 그때 배운 댄스로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일 때문에 처음엔 참석을 안하려 했었지만 아내의 잔꾀(?)로 참석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후기

: 사업담당자 Story



이들의 모습속에 우리사회의 미래를볼수 있었다!

광주YWCA / 윤정순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다른 문화속에서 임신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기까지 가족 및 주변의 도움 없이는 많이 어렵고 힘겨워 한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기도전 이들은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여러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정착하면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먼저 한글을 배워야했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임신부의 역할에 대해 물어 물어 터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아이를 갖고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주변에서 가르쳐주어도 힘든 문화속에서 혼자 터득하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는 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더 힘들어 하면서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자녀와 함께했던 다양한 각도의 본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신체, 감성, 생활습관에 도움이 되었으며, 더불어 이주여성 또한 자연스런 한국어 습득 및 사회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교육 종결이후 이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며, 모임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극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란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이들은 나름대로의 교육관과 자녀의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세계속에서의 리더자로 만들어보려는 큰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속에 우리사

회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우리사회가 이주여성들을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며 한국인으로 만들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나는 시간들이었다. 본인의 행복은 잠시 뒤로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한국의 여성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였고 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더불어 행복했다.

한국여성재단이 성평등한 사회조성과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여성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부부를 변화시켰을 때! 말로 표현할수 없던 그감동!

희망웅상 / 김향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전화통을 붙들고 저녁 늦게 까지 남아 남편들을 설득해야 했을 땐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만만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걱정엔 눈앞이 캄캄했으나 막상 첫 교육일이 되자 몰려온 부부들을 보고는 희망을 감지했다. 교육에 익숙하지 못한 부부들은 교육이 시작되자 경직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으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표정들이 풀렸고 교육 횟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을 즐기며 질문들도 늘어가서 교육을 하는 강사들도 힘을 얻는 듯 했다. 경우에 따라선 부부들의 개인적 사정이나 주변상황으로 참가 인원이 확 줄어들 때도 있었으나 미리 전화가 와서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해



줄 틈 실무자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부부교육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부부를 발견했고 그 부부들을 전문 상담사와 연계시켜 전력을 다한 끝에 긍정적으로 부부를 변화시켰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린이교육은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보람을 크게 느끼게 했는데 처음에 제 멋대로인 친구들을 봤을 때 머리가 복잡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한 번의 교육 실무를 보면서 목이 설 정도였으니, 그래서 실무영역을 바꿀까 일시적 고민도 했지만 생각의 틀을 바꾸고 어린이 교육의 실무에 임하기로 마음을 다졌다. 어린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뒹굴고 움직여야겠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의도적 노력 없이 마음으로부터 어린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횃수가 거듭될수록 꾸밈없는 어린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갔고 특히 집안 분위기로 인해 마음을 열지 않고 주위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남학생 친구 한 명은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교육일자를 챙기고 선생님들께 씩씩하게 다가오며 만행 노릇을 하고 있었다. 어린 친구들의 미미한 변화 하나하나가 큰 감동들로 다가온 시간들이었다.

눈에 띄게 변한 엄마들의 적극성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당당함!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정아

이주노동자센터의 나라별 공동체를 통해 이주여성들을 만나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3나라 자조모임을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한 영화보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했고 여름방학기간동안 엄마에게 직접 배우는 엄마나라말과 놀이는 엄마들에게 많은 자신감과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동체와 정체감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무언가 변화한 것 같지 않지만 집에서 엄마에게 엄마나라말을 물어보는 자녀들이 많아졌으며 나와 같은 상황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동질감과 친근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날은 다른 모든 나라사람들과 동네사람들도 초청해서 서로 즐길 수 있었고, 나들이 가는 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가로 센터차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알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주여성들이 갖는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언어발달이 늦어질까봐 전전긍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는 언어에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더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아예 버릇이 없어지거나 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엄마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문화 안전망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엄마들의 적극성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당당함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하기 꺼려하던 엄마들이 당당하게 어느나라 사람인지 이야기 하고 그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엄마나라말 배우기와 놀이체험을 시작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강의를 하게 되었고 얼마전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강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어느나라에서 왔는지도 말하기를 꺼려하던 엄마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으로의 변화는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 예전의 엄마들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와 동남아시아의 역사, 각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엄마들 속에 있는 저 역시 똑똑한 활동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동행”이 아닌 “동행하여아름다운!”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우미숙

2005년부터 현재까지 6년차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의 부재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독(부부)세대보다는 시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일 경우 가족 내 갈등이 좀 더 증폭됨을 알 수 있었다.

고부갈등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편, 자녀 등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전체의 안녕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고부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고부갈등은 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고부갈등이 빈번할수록 그리고 고부갈등을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며느리의 심리적 안녕수준은 낮았으며 고부갈등은 또한 부부싸움을 유발하기도 하여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부정적 관계가 있다고 한다. 부계가족제도의 가족구조에서 고부관계는 다른 가족관계에 비하여 열세와 불리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가족관계의 변화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가족구범을 중요시하는 시어머니의 입장과 양성평등적인 삶과 자기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차할 수 없는 가족의식이 있고 서로 다른 문화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는데, 특히 국제결혼동거세대의 경우 한국의 문화 및 삶에 대한 동빈자로서의 역할을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위임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어머니의 역할이 많아짐과 비례하여 가족갈등이 발생, 증폭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시어머니 며느리관계향상프로그램을 마련해보

고자 다문화가족 솔루션 “아름다운 동행”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주여성과 시어머니를 중심에 두었으나 결혼주체자의 역할이 가장중요하기에 여주여성 · 시어머니 · 남편을 주체로 하여 5개의 테마(세대별 가정방문을 통한 면담 및 상담, 시어머니며느리별도, 통합프로그램, 함께 하는 마음여행, 남편(부부)모임)로 설정하여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편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서로화합하게 하고 갈등발생시 주체적해결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발생시 센터를 편한 이웃으로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으로 생각하며 편하게 연락,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실무자로서 돌아켜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동거세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서로가 원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가족들이 시댁어른 및 가족들을 1년에 몇 번 기본적인 기념의 날과 가족대소사로 인하여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보여 지기를 원하는 관계로 설정되어진 길지 않은 시간과 공간속에서 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어려워하고 그로 인한 말들이 많던가?

고부간의 갈등은 일방적인 한 사람의 희생과 포기가 없는 한 적어도 우리세대(40대)에서 만큼은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동거세대간의 갈등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한 부분인데 너무나 당연한 현상을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너무 심각하게 다가가지 않았으나 하는 반성을 하며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동행”이 아닌 “동행하여 아름다운”이라는 주제가 더 맞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여건에서도 기쁘게 가정방문을 허락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허리와 관절이 좋지 않은 삼에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3층까지 걸어오시



사업후기 : 사업담당자 Story



고 긴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당신들의 팍팍한 인생여정을 쏟아내 주시며 여성선배로서 존경심을 일깨워주시던 시어머님들과 실무자들을 격려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남편, 이주여성 등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사회의 따뜻함과 배려로, 그녀들도 힘이 없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길 소망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권미주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꿈꾸며 더운 나라에서 이 추운 겨울을 견뎌낼 각오를 하고 찾아왔지만, 며칠 전 맨발로 쫓겨난 어떤 나이 어린 베트남 여성에게 이 겨울은 말할 수 없이 혹독한 계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어린 베트남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작은 울타리 하나는 가지고 있음에 얼마간은 안도하게 됩니다. 특히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까지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쉼터지원사업은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었기에 더욱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년간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식도 많이 개선 되었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

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최소한의 안전망은 구축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폭력피해 여성들의 생존과 자활을 위한 안전망 구축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매 맞고, 쫓겨나서 한국사회에서 아이와 남겨진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들이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그녀들과 그녀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다려주는 일은 당사자인 그녀들 뿐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동의해주시고 3년간 묵묵히 지원해주신 우정본부와 한국여성재단에 쉼터 전체 실무자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단순한 생활적응을 넘어서서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 등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가능한 힘을 기르게 되어 더욱 큰 보람이 있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기초교육 및 기술습득이 더욱 든든히 이 여성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한국 남편에게서 가족에게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또 다른 가족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었던 한국사회의 따뜻함과 배려를 쉼터에서 거주했던 이주여성들은 오랫동안 간직할 터이며,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이렇게 받았던 온정을 다시 그녀들보다 힘이 없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그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지원사업이 가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무형의 결실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분들께 쉼터에서 거주했던 모든 이주여성들과 실무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0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I ♥ 다문화 세상! 다문화 친구! 수상작품



[대상] 백서영 (북대구초4학년)

우리 집은 모여 사는 다문화 주택 _수필

딩~둥
“누구세요?”
“.....”
이상하다. 남자목소리가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몰라서 엄마를 바꿨다.
“누구세요?
아! 네~”
엄마가 문을 딸깍 열어주었다.
“아래층 아저씨네.”
“아! 그래?”
“중국 아저씨라 발음이 좀 이상하지.”
중국아저씨가 우리말로 “아래층인데요.” 하는데도 나는 꼭 영어 같이 들리고 못 알아 들어서 멍청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집은 주택이다. 우리 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구도 있다. 다세대 주택이라 한단다. 위층은 우리, 아래층의 방 2칸에는 중국 아저씨, 중국인 부부가 살고 있다.
오래전부터 아래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나갔다.

나는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엄마 말로는 한 3년 전부터 외국 사람들이 방을 얻으러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고 한다.

내가 기억하는 아래층 사람들은 중국사람, 시골에서 올라온 아저씨와 베트남 부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수선집 할아버지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사람, 두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이다.

같은 대문을 쓰면서도 중국인 아래층 사람들과 말은 별로 안한다. 그중 우리 할머니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나는 계단 내려가면서 살짝 고개 숙이며 살며시 인사 하는 게 전부다. 내가 큰소리로 인사하면 나한테 외국말로 말을 시킬까 겁이 나기도 하고 우리말을 하셔도 내가 잘 못 알아들을까 걱정이 돼서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간다.

말은 잘 안 해도 가까이서 보니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외모도 크게 우리랑 다를 것도 없고 생활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다. 말하는 것 빼면 다른 나라 사람이랑 한집에 살고 있다는 걸 까먹을 때가 더 많다.

2010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

요즘 더워서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아래층 사람들 얘기하는 게 들린다.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대화하는 걸 들으면 신기하다. 술라 술라 리듬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싸우는 것 같이 말이 되게 빠르고 크다. 우리 경상도 말도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싸우는 건줄 알고 겁먹는다는데 중국말도 비슷한 것 같다.

중국말이랑 우리말처럼 다르면서 비슷한 것이 또 있다. 그건 바로 음식 맛!

작년 추석 때, 우리 집은 시골벽적하게 음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젊은 중국 언니, 오빠는 돌이서 집에만 조용히 있는 것 같았다. 그걸 본 아빠가 음식 좀 나눠주자고 했다. 전이랑, 나물, 닭, 탕국을 쟁반에 차려 아래층에 주니 언니, 오빠가 무척 부끄럽게 받고는 고마워했다. 몇 시간 뒤, 언니가 다시 준 쟁반 위에는 빈 접시가 아니라 계란 국, 나물, 잡채 같은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랑 할머니는

“그냥 줘도 되는데,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다했을까?”

“맛있겠다! 진짜 중국 음식을 다 먹어 보네~”

둘러 앉아 맛을 보는데, 순간 옥~, 계란 국은 너무 짜고, 나물이랑 고기 섞인 잡채 같은 건 냄새랑 맛이 너무 이상했다. 고맙긴 한데 맛있게 먹지 못할 맛, 정말 우리 음식과 다른 맛이였다. 혹시 아래층 언니, 오빠도 우리가 준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억지로 먹느라 고생한 것은 아닐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주려다 고생하다니 웃기기도 했다.

음식모양도 참 비슷하고 서로 나눠주려는 마음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좋아하는 맛이나 음식에 쓰는 양념은 완전 다르다. 외모, 음식, 말 등. 진짜로 다른 것도 많고 비슷한 것도 많기만 하다.

가장 인사도 많이 하고 지냈던 젊은 언니, 오빠는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 다른 곳의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이사를 갔다. 섭섭했다. 그 옆방의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줌마랑 그 남편 아저씨도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 가셨다. (임신도 하셨고)

별로 안 친했지만 그 분들이 우리 집에 살았던 걸 좋게 기억해주고 다른 곳에서도 잘 사셨으면 좋겠다. 께!

지금 아래층에 살고 있는 중국 아저씨, 중국인 부부를 보

면 되게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것 같다. 그 부지런함을 나도 배워야겠다.

나는 이곳이 우리나라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잘 살려고 고향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왔다. 무조건 싫어하지 말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

다문화 가정 이라는 걸 나는 잘 몰랐다.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래층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상관에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 가족이랑 중국인 부부, 중국인 아저씨가 한 대문을 쓰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니 다문화 가족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니까 모여 사는 다문화 주택이라고 하고 싶다.

옥상에 올라가면 빨랫줄에 우리 빨래랑 아래층 빨래가 나란히 걸려 있는 걸 가끔 본다. 자리가 비좁다고 투덜대지 않고 살짝 빨래를 당겨주고, 빨래집게 하나씩 양보해 주는 우리 엄마랑 아랫집 사람, 파나 야채를 정답게 나눠주시며 말 한마디 더 걸어주시는 우리 할머니, 직접 만두를 만들었다며 할머니께 먼저 주시는 아저씨, 이 모습이 우리 대문 안 모습이다.

모여 사는 다문화 주택인 우리 집은 엄청 친하진 않지만, 서로가 조금씩 정이 쌓여 가며 어울려 지내고 있다.

나도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안녕 하세요!” 인사를 해서 “이층집 큰딸은 인사도 참 잘하는 밝은 아이네~” 하는 칭찬을 받고 싶다.



[초등부 1등] 유은주 (백동초 3학년)

우리집은 다문화가족 _수필

나의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다른 나라에서 오셨을 때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

나는 가끔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 오해가 생겨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있어 최고로 소중한 존재이기에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한 존재이다. 내가 가끔 상장을 받아오면 엄마, 아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고 내 얼굴에는 기쁨의 꽃이 활짝 핀다.

친구들은 나를 보고 가끔 베트남 사람이라고 놀리기도 한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빠에게 말씀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 세상은 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나라의 피가 섞여 있다고 했다. 옛날옛날 김수로왕도 인도의 여인과 결혼했었고 한국의 훌륭한 사람 중에도 엄마, 아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도 한 가족이지만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다문화’의 뜻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안에서만 생활하기엔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제는 지구인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문화 내 문화 차별을 하면 안되고 나와 다른 문화도 배우면서 서로 좋은 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한국, 베트남이라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엄마를 엄마로 좋아하고 엄마도 나를 딸로 사랑하면 베트남이면 어떻고 한국이면 어떠냐고 하셨다. 베트남도 멋진 나라이고 한국도 멋진 나라이기는 마찬가지일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나름대로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빠 말씀을 듣고보니 친구들이 나를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어도 내가 마음이 화가 나있는지 기쁜지 슬픈지 귀신같이 아시고 맛있는 것도 잘 만들어 주신

다. 그리고 언제나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셔서 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내동생 준우도 엄마를 참 좋아한다. 준우는 참 잘 토라지는데 엄마는 신기하게도 소리도 안지르는데 엄마가 몇 번 쓰다듬어 주면 금방 돌아온다.

엄마는 은지라는 예쁜 여동생도 낳았는데 아직 예기라서 자주 아프고 엄마에게 늘 안겨 있으려고 한다. 가끔은 은지를 내가 안아주기도 하지만 은지가 무거워 계속 안아주기는 힘들다. 우리 엄마는 남들이 뼈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은지를 안고 있는지 대단하신 것 같다. 엄마는 다문화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은지가 아프거나 준우, 내가 아플 때마다 옆에서 간호하느라 잠도 잘 못 주무신다. 엄마가 너무 힘들거 같아서 그냥 쉬시게 하고 싶지만 또 아픈데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괜히 신경질이 나곤 한다. 밤새도록 힘들게 간호를 하고 다음날이면 음식점에 가서 손발이 아프도록 일을 하신다.

아빠,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나와 준우, 은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보게 해 주고 베트남에도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작년에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왔고 올해 여름 방학 때도 베트남에 다녀오기로 했다. 아직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은데 내가 또 베트남에 간다고 하니 굉장히 부러워한다. 이번 베트남 여행에선 사진도 더 많이 찍고 더 많은 곳도 가보고 해서 친구들에게 많은 자랑을 해야겠다.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외할머니와 삼촌, 이모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참 잘해준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엄마가 옆에서 통역을 다 해 주니까. 베트남 삼촌과 이모도 더듬더듬 한국말을 하시기도 한다. 그러면 나도 엄마한테 배운 베트남말로 인사를 하곤 하는데 삼촌, 이모, 외할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신다. 준우는 베트남 엄마 동네에 가면 인기쟁이다. 우리는 베트남에 가면 인기가 많아서 지금

2010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

도 베트남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에 가기 전 베트남말 몇 개를 엄마에게 더 배워서 삼촌, 이모에게 실력을 보여주고 와야겠다.

나는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가 베트남에서 왔다는 것이 좋다. 엄마가 오고 아빠도 일찍 들어오시고 우리에게도 훨씬 친절하시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에도 해 드린 것이 없고 다른 날에도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손,발이 아프게 일하셔서 우리를 위해 쓰신다. 내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

면 더 슬퍼하는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아빠와 나를 이어주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더니 엄마를 처음 봤을 때의 서먹서먹한 마음도 없어졌다. 사랑으로 뽕뽕 뭉친 우리 가족은 앞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 앞에서라도 엄마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다문화 가족임을 당당하게 생각할 것이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중등부 1등] 김소영 (광주 중앙중 3학년)

한국인? 일본인? 나는 나! _수필

나는 1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받아 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그러니깐 한국인이니, 아니면 일본인이니?” 일단 외양적으로 말을 하자면 나는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에 베일 것 같은 오뎅만 코가 아닌 엄지만한 코에 황색 피부를 가진 누가 봐도 전형적인 동양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한국에서 살면 한국인으로 보이고 일본에서 살면 일본인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말을 하자면 한국국적과 일본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여행을 갈 때 여권을 두 개나 들고 다닙니다. 문화적으로 말을 하자면 2pm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게 한국과 일본의 축구경기가 있는 데 누구를 응원 할 지를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저번 5월 24일 한일 축구 평가전이 있던 날 나는 목이 시도록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는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한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문화적, 법적, 외양적인 것 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16년 인생을 산 나에게는 한국을 향한 애국심이 언제나 가슴속에서 감부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는 그 감부기는 마치 산소 통에 내뿜져 진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동시에 내게 수도 없이 받아온 나의 본연에 관한 질문에 한국인이라는 대답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태어난 저는 두 쪽 모두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누구에게나 특징적으로 한 단어로 통했습니다. “그 에 있거나, 혼혈 엄마가 일본인분이러던” 나는 그때 너무나 혼혈이라는 단어가 싫었습니다. 마치 혼혈이라고 하면 혈통이 섞여서 잡종을 뜻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 부터 통용되어 쓰이는 ‘다문화’ 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국에 입장에서 이질적인 문화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입장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느낌이 들기 때 문입니다. 내가 아는 다문화 후배들 중에 몇몇은 다문화라는

단어를 무지 듣기 싫어하는 데 내가 어렸을 때 들던 혼혈이라는 말 보다는 몇 만 배 듣기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일본에 대한 문화적 교류가 많아져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도 탄생했고 일본의 음식이라 던지 패션 스타일도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또래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마 비행기를 자주 타서 일본을 갈 수 있어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언제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픈 흔적으로 인해 구세대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은 당시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과 속에도 깊이 자리잡아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역사 시간 때 어떤 늙으신 남자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핍박했고 일본사람들은 결국 다 죽어야 한다는 굉장히 과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내 어머니가 일본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지만 그 사실을 안 대부분의 반 아이들은 나를 미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 진 채로 국사시간 내내 고개를 숙인채로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말도 없이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왜 울고 있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차마 어머니의 나라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물론 일본이 서구화된 문물을 가지고 한국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나라에게 굴복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 일본이 결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아이들의 눈빛에 왜 내가 고개를 숙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일본이 잘못을 한 것에 아이들과 같이 동의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내 안에는 확실히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감부기도 어딘가에서 꺼질듯 말듯 숨죽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제강점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풀어야 할 과제는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한국이 일본의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한국이 언제까지나 일본에 대해 비난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웬지 그 과제는 내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수 없이 꺼지고 커짐을 반복한 나의 한국 감

부기도 어딘가에서 꺼질 듯이 살아온 일본 감부기도 내가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수도 없이 받아온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일 뿐입니다. 나에게 있어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는 여권의 두께만큼의 작은 국적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16년 동안 가꾸어 온 내 자신은 사람에게 국적을 뛰어넘어서 다가서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것을 허물없이 받아줍니다. 2010년 월드컵에서 일본이 8강 진출에 패하자 내 안에서 내 친구들은 뽀뽀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반이 일본이던 상관없이 그들은 나를 나 자신으로 봐 줄뿐 더 이상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 자신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을 멀지만 이미 큰 정체성에 대한 숙제를 푼 내게는 앞길의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해 볼 용기가 있습니다.



2010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

[고등부 1등] 김유리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3학년)

다르지만 같은 우리 _수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열일곱 살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게 돼서 사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제가 팔짱을 끼고 있으니 계속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팔짱을 푸시더라고요.” 아웅틴 틸 씨가 유창하지만 어눌한 발음으로 이야기했다. 미얀마에서는 선생님이나 웃어른 앞에서는 팔짱 끼는 것이 존경의 표시인데, 우리나라에선 그것이 버릇없는 짓인 줄 알 리 없는 틸 씨는 계속해서 팔짱을 끼고, 결국 사장님은 화를 내셨다는 재밌는 일화였다. 틸 씨가 영문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십년이나 지나서 미얀마에 봉사활동을 갔던 한국인 친구가 말해 주었을 때였다고 한다.

아웅틴 틸 씨는 한국에 온 지 17년째 된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이다.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다른 몇몇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주노동자 방송인 MWIV에서 일하면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상담도 해주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려고 하는 어느 여름날, 2시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자리에서 그는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 소수 집단에게는 무엇보다 동등함과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모두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처지는 비슷한 이들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백인들이 지나가면 호기심에 영어로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흑인, 아랍계, 동남아시아계 사람들에게겐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인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피부색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한국식 인종주의인 셈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조한 관심은 대단히 국

민적이어서 몇몇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해 물어보면 관심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며 대답하길 꺼려한다.

그나마 돌아오는 대답들 역시 더럽다, 가난하다, 불법체류자들은 쫓아내야 한다, 범죄만 일으킨다, 청년실업률의 원인이다 등으로 대부분 부정적이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라는 단어와 함께 사회 곳곳에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향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다문화의 주체가 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 그들의 2세인 코시안들은 무관심과 차별 속에 갇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아무리 한국 내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의 존재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도 사람들이 이들을 가족으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을 피해를 주고 물을 흐리는 이방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언어장벽, 법이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부조리한 대우를 받아도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등 역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처럼,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기술을 배워 집에 돌아가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남편 한 명만 믿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신부들이지만, 이들이 한국에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한국은 이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 가

장 먼저 마음을 열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도, 난민들도, 그 2세들도 부려야 할 짐승이 아닌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며, 멀리 있어서 전혀 낯설고 완전히 다른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식을 쉽게 뽑아 버릴 수는 없다. 그 예로 미국의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은 현재의 다문화 사회가 되기까지 몇 십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한국의 이민 1세대들도 5, 60년 전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 땅을 밟고 인종차별과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서 인종차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오늘 날 미국이 다문화 사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 천천히 이주민들의 배경과 문화를 포용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짧은 이주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만의 전통, 풍습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고, 따라서 기회의 땅을 찾아온 유색의 이주민들의 문화를 비교적 쉽게 허용할 수 있었다.

흑인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과 여성에게 차례로 참정권이 주어졌다. 조금씩 소수의 권익이 보호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의 이주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몇 십 년 만에 미국은 다양한 출신, 인종, 문화, 성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다문화 사회'로 변모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회의 일부인 사람들은 그 다양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한국이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국은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혹은 우리나라 우리 땅이니 당연히 이들이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는 미국의 상황과 다른 만큼 다른 방법과 정도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주민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다문화 사회'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다양한 생김새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미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도 많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기 보다는 다른 인종,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인으로서는 살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온 처녀 총각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가족들과 떨어져 낯선 땅에 오자마자 언어도, 예절도, 문화도 모두 한국의 것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말하고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문화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 농, 어촌에 가보면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 아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아이들은 까만 피부색, 이국적인 생김새,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 때문에 놀람을 당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며 한국인으로 자라나고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선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은 이들의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17년 전 사장님이 아웅틴 틸씨에게 왜 자꾸 팔짱을 끼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라면, 혹은 미얀마에서 팔짱이 존경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어이없는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가 진정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전에 우리도 그들의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쌍방향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부모님 모두의 조국이 소중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다. 동남아시아계의 새색사가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한국인 시어머니와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고부간에 화목하게 일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한국 사람도 좋갓집 며느리가 아닌 이상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광고 속의 며느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

2010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

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한국 속의 다문화 가정, 서로 다른 문화의 어울림이라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어설피고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어쩌면 한국 사회가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동화되어 한국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초등부 2등] 홍다운 (신평초 5학년)

반짝반짝 은별이 _수필

“너네 엄마는 외국인이라며?”

“얼레리 팔레리, 얼레리 팔레리.”

우리 반에는 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가 있다. 은별이라는 친구이다. 조금은 왜소한 체격에 몸도 비쩍 말랐지만 항상 밝은 얼굴이 너무 매력적인 친구이다. 우리들보다 얼굴이 조금은 검은 색 이라서,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어렸을 적에는 은별이네 엄마가 외국인이라며 놀리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렇게 놀려서 은별이가 우는 날도 많았다. 짓궂은 남자 친구들은 그렇게 누는 은별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놀려대기만 하였다.

참 그 땐 왜 그렇게 놀렸는지 모른다. 아마 은별이를 좋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큰 눈이 예쁜 은별이를 좋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린 은별이에게 그 친구는 아마 못된 아이로 생각되었을 것 이다. 그리고 아직은 친구들의 장난도 잘 못 받아 주었던 은별이는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 이다.

그래도 은별이를 감싸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은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모두 동조하는 듯하다 분위기에겐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은별이에게 미

움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일 것이다.

강의를 마치기 전, 아웅뮌 툰씨가 하신 마지막 말씀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이해심입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제 조국과 그곳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안함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똑같은 아이가 되어 버렸다. 은별이를 놀리는 아이들 틈에 끼서 은별이처럼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은별이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조금 커서는 친구들도 은별이를 놀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은별이의 따스한 마음씨와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에 은별이가 좋아져 버렸다. 어렸을 적에 모질게도 굴었던 친구들 때문에 참 힘들었을 은별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래도 곳곳이 겹쳐서 지금까지 밝게 웃어주는 은별이에게 고맙다고 생각한다.

은별이의 엄마께서는 필리핀에서 오셨다. 은별이의 아빠와 엄마는 필리핀에서 사랑을 하게 되시고 결국은 국제결혼까지 하시게 되셨다. 요즘에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 사람들 등 여러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의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 대신에 신부의 가족들에게 돈을 준다.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은 은별이의 아빠께서 돈을 주고 은별이의 엄마를 사왔다고 놀리기도 하였다. 국제결혼을 하면 다 돈을 주고 신부나 신랑을 사오는 것 일까? 아니

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친구들이 오해를 해서 은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국제결혼하면 사람들은 나쁜 이미지로만 봐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 사랑을 한다면 그깟 국제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나쁜 시선으로만 봐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요즘 은별이에게 영어 과외를 받고 있다. 은별이네 엄마께서는 필리핀에서 사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신다. 필리핀에서는 영어가 국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필리핀으로 영어공부를 하러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도 영어 중에 사투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은별이네 엄마께서는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은별이는 정식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엄마께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은별이는 영어를 무척이나 잘한다. 가끔 영어시간에 원어민 영어선생님께 칭찬을 받기도 한다. 영어발음이 무척이나 좋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은 은별이가 부럽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엄마도 은별이네 엄마처럼 영어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영어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슬쩍 은별이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영어시간에 게임을 하려고 조를 짤때면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은별이와 조가 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영어를 잘하는 은별이 때문에 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은별이가 나에게 영어발음을 고쳐주기도 한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은별이가 내 영어발음을 고쳐주면 나에게도 좋기 때문에 요즘 은별이에게 발음교정을 받고 있다. 은별이가 있어서 내 발음도 한층 좋아진 것 같다. 은별이에게 고마워하는 중이다.

이번 봄 소풍을 갔던 날에 일어난 일이다. 친구들과 은별이와 함께 같이 박물관 안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언니들이 은별이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

“재 외국인 아냐? 얼굴 진짜 새까맣다.”

“엄마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이겠지. 요즘 다 국제 결혼하잖아.”

그 순간 은별이는 올라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서 눈물을 닦아낼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외국인처럼 피부가 새까맣다고 놀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친구인 내가 들어도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내 친구를 놀리는 언니들이 미웠다. 피부가 우리들과 다르게 조금 새까맣다면 뭐가 다른 것일까?

은별이는 우리들보다 피부가 새까만 대신 우리들보다 영어를 잘한다.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또 피부색이 검정색인 사람도, 하얀색인 사람도, 연주형인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다.

우리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 일일까? 나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다르면 어떨까. 은별이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다. 국제결혼이 점점 자리 잡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편견어린 시선으로 다문화가정을 바라본다. 이제는 사람들이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은별이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틀에 움매여 살고 있다.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엄마나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인 다문화가정 때문에 항상 남들과 다르게 대우받았다. 하지만 은별이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우리나라 한국분이시기 때문이다.

은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먹고 자랐다. 이런 은별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은별이와, 은별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 사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곱게 바라봐주었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정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엄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은별이는 누구보다도 밝은 친구이다.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은별이가 밝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2010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

[중등부 2등] 이주은 (관음중3학년)

봉사활동에서 만난 특별하지 않은 친구 _수필

이것은 얼마 전의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방학 동안 할 봉사활동의 목록 중에 눈에 띄는 봉사활동이 있었으니 바로 '다문화가정 웃음지원봉사 체험학교'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하루 동안 돌보는 봉사활동인가?'라는 생각으로 신청한 것이 내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시작이었던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봉사활동 당일로 다가왔다. 나와 같은 반 친구들 몇몇은 웃음지원봉사 체험학교의 주최 장소로 어느 한 대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근히 일찍 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었다. 그중에도 눈에 띄는 것은 우리와 다른 피부색깔을 하고 계신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어깨에서 까르르 웃고 있는 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있었다. 너무 일찍 온 탓이었을까, 같은 반 친구들과 나누어져 조가 편성된 탓이었을까. 괜히 뒤에 있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다니는 나누어진 책자만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을 때였다. 아까 문에서 본 어른들의 어깨에서 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내 앞 줄에 앉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분이 그 아이의 옆에 앉은 것이다. 우리보다 조금 더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동자가 너무나도 짙어 빨려들어갈 것만 같은 큰 눈과 오흘한 코를 가진 어린 소년은 심심한지 앞에있는 불편을 딸깍딸깍 거리며 놀고 있었다. 내 옆에 있던 언니나 선생님이나 귀여운 그 소년의 행동에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넬 때면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는 그 남자 아이는 너무나도 귀여웠다.

이제 그 남자 아이가 나이가 어려 의사소통이 잘 안되자 옆에 있던 어머니로 추정되신 분이 "나는 필리핀사람이고, 아빠는 한국인 사람이라고 여기 공장에서 일해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목적은 피터(그 아이의 이름인 것 같았다)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성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었는가. 다문화가족의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여기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은 우리도 남을 돕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지 않는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배우는 환경이 아직 열악해서, 적응하기에는 우리들과 다르다는 의식 때문에 동정하고 도와야 한다는 내 생각은 그저 단순한 선입견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내가 방금 말했던 '다문화가정은 불쌍하니깐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면 여기계시는 어머니 분들과 아버지 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해보면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지, 아직 우리에게 익숙지 않다는 것 뿐 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말이다.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몇몇의 가정들만 보고 나머지 가정들은 생각 안했던 내 자신이, 그리고 지금의 친구들이 생각났다.

우리가 먼저 "그들은 적응하지 못해서 도와주어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래. 우리는 적응하지 못해."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봉사활동에 나와 계신 어머니들처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고 우리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우리는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이 남을 도와 줄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없을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주러 간 복지관에서는 나이와 성별과 국적을 상관없이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웃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물론 내 앞에 있었던 피터도 어느새 내 옆에 와서 그 자그마한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어눌한 발음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조금 더 둘러보면 어머니들도 저 뒤에서 할머니들의 휠체어를 끌어들이고, 딸꾹질하시는 할아버지를 걱정해 안절부절 못하며 물을 떠다주시는 등 정말 열심이었다.

내 옆에 있던 피터는 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와 조금 친해졌고 헤어질 때는 다음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나와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하였다.

아직은 세상의 눈을 알기엔 너무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떻게 자신도 남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소년에게 어떻게 우리들은 "너희는 우리와 달라."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예요."라고 말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우리는 도와주어야 해요."라고 말하는 모순된 한

사람은 오늘 이 피터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필요 있을까요?"라는 대답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가 똑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보다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 그들을 괜히 의식해서 더욱 소외된 집단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라는 개념으로 놓아두는 것이 어떨까? 떠날 때 "프렌드, 프렌드." 하던 피터처럼 말이다.

[고등부 2등] 김규훈 (한국외대용인외고2학년)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_논설

뉴스와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다.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적인 경험을 통해 이미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주 경험이나 배경이 없는 육칠십 노인들도 이제는 '다문화'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본 단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우리 사회 사회도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 새삼 사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문화'라고 하면 막연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혼인해서 형성한 가정을 상상한다. 한국사회가 그러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초라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며, 아이들은 언어문제와 친구들의 따돌림 문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이다. 물론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의 상당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적 요소에 비해 현 상태의 의식수준은 참으로 한

탄할 만하다.

나는 한국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코시안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라고도 한다. 불행히도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 출생자녀들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쏟아낼 준비를 하기 전에 유년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에 있어 아직 다문화 지향주의적인 대한민국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동원되어 다양각색의 다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는 최근에도, 결코 나는 진정한 다문화 한국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라는 너무 쉽고도 흔히 거론되는 방법에 있다.

제도의 개선이란 다문화화(化)라는 새로운 사회 변동에 대해서 올바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각 관청에서 최소한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2010 다문화사회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

가정 태생 자녀를 위한 각종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입학이나 취직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포괄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들이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목소리를 낼 창구를 열어 주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응급상황 신고는 119번이고 범죄 신고는 112번이다. 서울시는 최근 ‘다산콜센터’라고 하여 120번 하나로 모든 민원을 문의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왜 다문화 구성원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쉬운 신고 구제제도는 없는가?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상천외한 사연을 안고 이 땅으로 입국하는데 수립부터 발효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리는 법적 장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들이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굳이 관공서에 찾아가서 되지 않는 한국어를 몸짓으로 표현하려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수화기를 들고 자신의 언어로 안내되는 ARS 및 정보 이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 이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늘려야 한다. 외국인 부모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크지 않다. 실제로 내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급식 신청서 보호자 서명란에 회사에서 늦게 근무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서명을 받으려고 기다려야 했다. 이따금씩은 기다리다 잠이 들어서 다음 날 담임선생님께 혼난 기억도 몇 번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법적 지위가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지고, 자연히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부모 양쪽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있어 분명한 차이점이 생긴다. 다양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적어도 자녀를 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처우 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응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북 청소년 등 북한 이주민들을 위해서 남한 사회 적응 기관인 하나

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이들 탈북 동포들에게 남한 사회에 필수적인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교육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 제공의 기회를 준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에 맞닥뜨릴 때 적응 교육 기관을 거치면 그 사회에의 적응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향해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지 못한 채 그림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십대 정도까지 한국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다가 학령기에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공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응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응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생활 적응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사회 진출에 앞서 중간 단계적인 교육 시설을 제공한다면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빠르게 한국사회와 발을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청년·청소년들의 입학이나 취업에 있어 일정 비율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소수자를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바로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가 역차별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들 중 다수가 기존 한국인과 동등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의 어머니는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비록 같은 입시교육 토론장에 모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정보를 흡수하게 되었고, 개개인의 진실된 능력만큼 정보력 또한 중요한 한국 입시에 있어 상대적인 소수자일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제 할 일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진학·진로를 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바로 적극적 조치를 통한 각종 혜택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다문화 구성원들은 외관상 최소한의 올바른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 인식의 개선, 즉 다문화라는 사회 변동에 대한 우

리의 내적 변화는 국가 정책 차원의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회의 내적 기반과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오천 년 단일민족의 배타주의를 앞세우고서는 진정한 다원사회, 다문화 사회를 추구할 수 없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어렵고 추상적인 학술적 개념이 아닌, 실제 삶 속에 있어 서로에게 느낄 수 있는 다양성의 존중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란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인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진심이 담긴 마음이고, 동남아시아 출신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놀 수 있는 프랑스인-한국인 혼혈아의 열린 심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인 특유의 편협함을 없애는 것이다. 오천 년 단일민족주의 아래, 한국사회는 어떠한 일정한 표본을 만들고 그것에 기준하여 모든 것들을 표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점수 하나로 전국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수능시험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고, 엄격한 두발규제 아래 매일 서로의 같은 모습만을 보는 중·고등학생들의 창의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어렸을 적부터 이러한 압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강요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한국사회가 다양성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은 다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지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은 이주결혼 여성과 그 자녀뿐만이 아니다. 이주결혼 이민자부터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 중국, 베트남과 르완다에서 건너온 난민신청자, 북한에서 건너온 동포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단순 해외 여행객까지 모두 우리 다문화 사회의 식구들이다.

하지만 다수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포괄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적 정당

성이란 어떠한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를 제정하는 데 있어 네거티브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을 앓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다문화 구성원들을 맞아들이고 이들이 올 때마다 이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낸다. 또한 그 용어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변경하기도 한다. ‘새터민’이라는 단어의 함의가 무의식 속에서 차별적이었다면 ‘탈북 청소년’으로 바꾸어야 하는 원리와 같다. 비록 지칭의 대상은 같더라도 올바른 언어 선택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올바른 개념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열 해를 맞아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그동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회자되던 ‘다문화’라는 개념이 어느새 우리의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제 어디를 가도 다양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자신도 이러한 다문화화(化)의 조류 속의 앞선 주자로 나서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있다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전진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각종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스피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흡수하여 동고동락하며 공생하는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열었으면 한다.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파트너 단체



광주YWCA 062-524-3511

광주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기독교여성단체로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YWCA를 통하여 힘없는 이웃들이 힘을 얻고 평화로운 세상이 건설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섬김, 나눔, 살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053-944-2979

국가와 인종, 성별의 차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꿈꾸는 곳입니다.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일상에서 평등과 평화를 실천하는 재미있는 이주여성 운동단체입니다.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051-864-2603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며,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구성 원으로써의 자긍심을 강화해 나가고 다문화 가족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산이주여성센터 031-372-9301

오산이주여성센터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 문화의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과 언어적 어려움 등을 함께 합니다. 일방적 문화 수용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녀의 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며 이주여성 스스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23-5253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에 이주해온 여성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 수 있도록 도우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아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 평등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사)희망웅상 055-366-2353

(사)희망웅상은 경남 양산 웅상 지역에서, 지역민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특히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도 희망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모인 자원활동가 단체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파트너 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7개 월터 지원) 02-3672-898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외국인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생명존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한국사회의 적응지원,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